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6

2012 VOL.192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93일간의 공작은 바다 이야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어린이 19,000원
- 평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어린이 13,000원
- ★ 특별권, 기간 이용권, 특정일권 등은 하단 입장권 구매처 참조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개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PRIME NUSANTARA TOUR SERVICE

E-mail : michelle.lee@primef.co.id

SUKA KOREA
Super Unforgettable Kind Amazing

프라임 투어의 한국패키지 브랜드 명칭
'좋아하다'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SUKA를
멋지고 잊을 수 없고 친절하며 굉장한 한국이라고 풀이함.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거듭 납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상호를 변경 하고
더욱 적극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장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전파합니다.

- ▶ 문화유산 패키지: 유형 및 무형 문화재 중심 패키지
- ▶ 한류 패키지: 열정적인 공연물 중심 패키지
- ▶ 의료 패키지: 발달된 의료상품 중심 패키지
- ▶ 쇼핑 패키지: 면세점부터 시장까지 쇼핑 중심 패키지
- ▶ 기업 패키지: 기업의 요청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사 중심 패키지



프라임 투어 서비스

- ▶ 인도네시아 여행 서비스
- ▶ 주요 지역 호텔 및 차량 예약
- ▶ 기업 및 단체 컨퍼런스 개최
-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 ▶ 교민을 위한 가족초청 프로그램
(자카르타 친지방문과 유명여행지를 결합한 여행)
- ▶ Garuda항공 에어텔 예약
~ 자카르타 출장고객
~ 인도네시아 여행객,
~ 인도네시아경유 호주여행 고객



인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피 온열매트 해피 코스메틱을

이제 인도네시아 각 가정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연처럼 정직하게
HAPPY DREAM

해 외 금 용 계 좌 신 고 안 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동 신고제도는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사관홈페이지(<http://idn.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
서에 기재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국기업체 관련 피해 사례 유의

지난 5월 중순 중부자외에서는 아국기업인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아 동 기업체 관련 현지인 납품업자들
이 돈을 송금한 피해사례가 발생, 동 지역사회 아국기업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아국기업체 근무 현지인이 은행에서 회사 돈을 인출해 귀사 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하는 등, 아국기업체에 대한 피해속출이 우려되고 있는바, 동포여러분께서는 다음 피해사례를 참고,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귀사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적극 계도해 주시고, 회사 돈 인출 시에는 2인 이상 직원
이 동행 곧 바로 귀사 하도록 하고, 거액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측에 직접 현금수송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
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원 미상인자가 위 아국기업체 관련 다수의 현지인 납품업자에게 전화로 동 아국기업체 사장 Mr. C를 사
칭하고, 회사창립일 또는 야유회 등을 핑계대면서 돈을 빌려달고 해, 이에 속은 납품업자 1명은 은행계좌
로 RP.20,000,000를 송금하였고 또 다른 납품업자 1명은 돈을 준비하여 직접 아국기업인을 방문, 돈을 전
달하려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미수에 그친 바 있음.

-아국 기업체 근무 현지인 직원이 회사 돈 RP.120,000,000, 미화 3,600불을 인출하여 돌아오던 중, 곧 바
로 귀사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다 이중 미화 전액 및 RP.1,300,000를 소매치기 당함.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홈페이지

한인사회와 더욱 가깝게 만나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하게 바뀌었습니다!

Homepage : www.innekorean.or.id

새롭게 변화하는 한인회와 함께 개편된 홈페이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생활하면서 그리고 출장과 이주에 필요한 정보를 <인도네시아 생활정보> 게시판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 <종교>, <여행>, <비자> 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비슷한 종류의 궁금한 사항을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전화번호부’는 업종별 혹은 ‘업소명’의 일부 단어로 1,100여 개 업소의 전화번호, 주소, 위치 정보(Google map)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정보를 등록하실 경우에도 email을 통하여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소식을 13개 지역의 ‘지역 한인회’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한인회에 게시판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와 관리자간의 양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한인동포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한인뉴스’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매일 1회 발행되는 <한인뉴스>를 텍스트화하여 기사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사진 정보와 광고는 기존과 같이 PDF 다운로드 방식을 병행 적용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게시판의 성격과는 무관한 <통합검색 기능>, <최신 게시글 열람> 기능이 추가될 것이고 2012년 6월에는 스마트폰용 홈페이지 오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사회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국제운전면허 번호의 변경 주요내용

■ 국제운전면허 번호 부여체계 변경

-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9자리에서 12자리로 변경
- 발급 일련번호 6자리의 첫 자리는 지방청은 1-5, 시험장은 6-9를 사용

[기존]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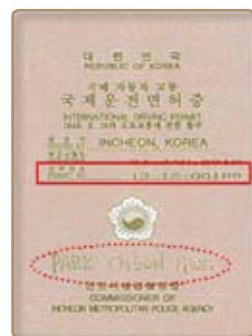
 -

--	--	--	--	--

시험장코드(2) 발급연도(2) 발급 일련번호(5)

[변경]

				-			-						
지방경찰청+경찰서코드 또는 시험장코드(4)					발급연도(2)			지방경찰청 별 또는 시험장 별 발급 일련번호(6)					



[기 준]



[변 경]

발급 지방경찰청장의
국문 또는 영문의 서명

- **개정번호의 적용** : 2012. 6. 1.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부터
 - **개정 자료의 활용** : 협약국에서의 혼선 사전방지(개정 전, 후 번호를 최장 1년 혼용) 및 외국 정부 기관에서의 문의 등 대응 기초자료로 이용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P.A.K. Lawfirm(김민수 변호사)과 함께 기초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문내용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관련 법령 ·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김호일 전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이메일 : hoilkim10@gmail.com

○대표전화 : (021) 2992-2500 ○핸드폰 : 0811-183-3164

초강력 에너지원 끌랭깅

파초과 파초속 식물과 열매



끌랭깅은 인도네시아에서는 lengkeng 또는 Kelengkeng이라 불린다. 용의 눈(dragon eye), 고양이눈(cat's eye)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피를 만들어 주는 과일'이라고 한다. 끌랭깅에는 혈액을 만드는 주성분인 철(Fe)이 포도의 20배, 시금치의 15배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기에 많이 볼 수 있는 과일로써 포도보다 큰 것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투명한 알맹이가 나온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데, 그 맛이 무척이나 달고 시원하다. 열대과일 중에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한다.

☆☆☆ 효능 ☆☆☆

- 철이 포도의 20배, 시금치의 15배 피를 만들어 준다
- 건망증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
- 지나친 더위로 약해질 수 있는 생기를 보한다
- 총명탕 약재의 하나로 수험생들에게 적합하다
- 씨는 타박상 겨드랑이 냄새제거, 상처치료에 효과적이며
- 나무껍질은 디프테리아, 인후질환에 효과가 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표지설명 ▶▶▶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얻는다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동포안내문.....	6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외	
한인회 홈페이지 변경 안내	7
동포안내문.....	8
국제운전면허번호의 변경 주요내용 외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열대과일/꿀레깅스.....	9
차 한 잔 마시며<김문환> /한인사회의 정서.....	12
6월 특집> 한국의 바다.....	14
인터뷰> 재인니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	18
연재기고<신성철> 여수엑스포에 다녀와 보니.....	22
풍경과 사람<엄종한>/ 말루꾸	25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유레카’는 알았다,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낳게 한 기쁨의 외침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한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레카! 하고 외치는 기쁨은 꼭 어려운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동시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진정한 환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내주기를 기다리는 단순함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멋진 유월! 만나십시오.

haninnewsinni@gmail.com 박 정 자



이모저모, 한인사회.....26

- 아세안지역 민간대상 SNS 활용 교육
- 수입자인증번호제도 실시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 한국관세청 인도네시아에 관세행정기법 연수
- KOFA 제2기 회장단 정기간담회
- 한인사회단체장-재외동포재단 간담회
- 자카르타 경상남도 해외사무소 개소
- KOICA-UNESCO 녹색학교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
- 미원인도네시아 경제자립프로그램 런칭
- 한국봉제협회의 사은의 만찬
- 포스코 일관제철소 코크스공장 연와 정초식 가져
- 인도네시아우리은행 개점 20주년 고객사은행사
- SK텔레콤 잉글리시빈 런칭
- 제2회 참모총장배 전군 용무도대회 개최
- 해병대 전우회 인도네시아지회 창립발대식
- 한국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시작
- FUN! FUN! FUN! Kids Festival
- 땅그랑한인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 재인니한인음악협회 제12회 청소년음악회 개최
- 제2회 샴유직아카데미 성악발표회
- 한인니문화연구원 기업문화 캠포탐방
- 2013년 세계한상대회 광주에서 개최
- JIKS 소식 / 코카콜라컵 축구 리그 준우승 외
- JIS에는 지스아카데미가 있다 <박용희>

Jalan-jalan Jakarta <사공경>

/불멸의 특급오성장군 수디르만 동상.....45

수입자인증제도 안내.....51

자카르타한국문화원이야기.....54

속담으로 익히는 바하사인도네시아 <박정자>
/Mengatakan mudah, mengerjakan susah.....56건강하게 삼시다 <박진원>
/생활습관병에 대해서.....58행복에세이 <서미숙>
/느리게 걷기61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분쟁해결제도 (2).....64

와칭! 코리아.....68

알립니다.....70

한인회 임원찬조금.....71

생활정보.....72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정서

김 문 환 / 논설위원

한 인기업의 인도네시아 정착사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산림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진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곧이어 종합상사법에 의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한 삼성물산, (주)쌍용이 1975년에 종합상사 제1, 2호를 기록하며 자카르타에 교두보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 당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류는 주로 깔리만탄과 수마트라 밀림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산림개발업체 직원과 술라웨시, 수마트라, 깔리만탄 오지에서 땀 흘리는 건설회사 현장직원 1천여 명이 전부였다. 연말송년회나 또는 한국에서 온 연예인의 공연이라도 있는 날이면 자카르타 주변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모두 모여들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의 회포를 풀곤 했다. 소속회사는 다르더라도 한가족 같은 유대감이 조성되어 평시에도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스스럼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곤 했다. 기업간의 경쟁구도는 비즈니스 특성상 당연하지만, 때로는 상부상조하며 교민사회 전체가 한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로 형성되어 왔다. 한국기업들은 구라파나 일본 같이 인도네시아와 뿌리 깊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연고가 없었던 탓에 무(無)에서 시작하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하여야 했다. 우선 선발국들이 기피하거나 거들떠 보지 않던 업종부터 손을 대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과 상충되는 영역에 뛰어들게 되면 암초에 부딪치며 고난의 길을 걷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럴 때면 우리 기업끼리 공동대처하며 권익을 사수하는 사이 어느덧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단련된 일체감은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큰 보약이 되어 한인사회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인사회 역사 40년 동안 한인회장이 단 3명만이 배출되었음은, 단합되고 안정된 동포사회임을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가능성의 나라로 인식하고 속속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또는 제3국에서 하던 대로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 이곳에서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한 대기업은 이곳의 간판 기업 격인 K그룹과 법정분쟁에 휘말려 있다. 우리는 상업분쟁 당사자의 잘잘못을 판단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단지 한국의 정상급 대기업과 한 인사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한 진출기업간의 이해상충으로 떠올지는 그 파장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인사회의 정서에 와닿아 부딪치게 되니 전혀 무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계도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재래시장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물며 OECD 가맹국인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추세에 역행할 리는 없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기업의 상생은 이국 땅 이곳 한인사회인들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는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기업간의 분쟁은 당사자 스스로에 대해 명예실추를 가져오며, 결국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민들은 양자간의 대립이 화해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염원할 뿐이다. ■

할머니의 바다 / 김준태

아가야, 오늘은
솔바람 구비구비 동백꽃 남쪽
그 해남이란 곳에 걸어가서
대추씨앗처럼 따글따글 익은 슬픔도 만나보고
천년을 살아온 낯쇠바람 손자가 되어
할머니의 푸른 천정 앞바다를 허우적거리면
병든 내 노래도 핏기가 돌까 혹은 돌까!

공자 맹자 사서四書를 읽었다는 사람들이
낯 놓고 ㄱ자도 모르는 무지랭이를 앞서서
갈팡질팡 서로의 목숨을 팔아먹던 시절
피, 피, 피가 핑핑핑 들끓던 그 망나니시절에도
뽕나무발 뽕재기벌레 한 마리도 밟지 않고
진도나 아리랑고개를 후여후여 넘어오신 할머니
그래도 자신의 죄罪만을 드러내며 대흥사大興寺에 빌고!

부처님께 빌고 한울님께 빌고
는 한가운데 웅달샘에 가서 웅달샘神한테 빌고
당산나무에 가서 당산나무神한테 빌고
달을 보며 달을 쫓아가며 둥그러이 빌고
하루에도 수십번 춘하추동 수수백년 빌고지고
쌀 한톨 콩알 하나 하늘로 알고 살아오신 할머니
할머니의 무명베 치마에 묻혀서 펄럭인다면
병든 우리 노래도 핏기가 돌까 혹은 돌까!

살아생전 발을 매다가도
축! 처진 늙은 젖이라도 내밀어
어린 손자들의 울음을 울음을 막아주던 할머니!
아가야, 오늘은 그러면
그러했던 할머니의 천정 앞바다에 풍덩 뛰어든다면
거울이 빠져나간 내 몸통이는 밝아질까 혹은 밝아질까
솔바람 구비구비 동백꽃 남쪽
그 해남이라는 곳에 일자무식一字無識으로 걸어가서
대추씨앗처럼 따글따글 익은 슬픔도 만나보고
천년을 넘을지어 나부껴 온 낯쇠바람의 손자가 된다면!

사진 : 엄종한(사진작가)

바다는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로이며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로서 국가 흥망성쇠의 열쇠이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얻는다’는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해양박람회, 여수엑스포가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세계 100여개 나라가 참가하여 각 나라 해양산업의 비전과 미래를 전시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부터 바다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 한국의 바다는 신화로 변용되어 신성공간으로 믿어져왔으며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생활문화의 기반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보고였다. 참계와 파도의 술래잡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드넓은 갯벌의 서해, 크고 작은 섬들이 남국의 풍경을 자아내며 대륙의 관문으로 당당한 남해, 백사장과 기암절벽에 수많은 전설을 새겨놓고 고래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동해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만의 자연유산임에 틀림없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에 둘러싸인 바다로 평균 수심이 낮아서 약 40m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과 중국의 큰 강들로부터 유입되는 누런 진흙 때문에 바닷물 색깔이 누려서 황해라고도 불린다. 간조와 만조의 차가 커서 갯벌이 넓게 발달하였으며,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 연안, 브라질의 아마존 강 하구 등에 발달한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힌다. 갯벌은 해양생물의 좋은 산란지와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생명력

이 넘치는 곳이다. 서해 갯벌에서는 어미를 파헤쳐도 조개나 낙지를 잡을 수 있다. 서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기, 갈치, 멸치, 꽃게 등이 많이 잡힌다.

최근 서해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규모 방조제들이 축조되고 공업단지들이 곳곳에 들어서며 주요 항구들의 시설이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주요 활동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는

서해보다는 깊지만,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약 200m 정도로 동해에 비하면 수심이 아주 얇은 편이다. 남해는 복잡한 해안선을 가졌으며, 크고 작은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남해안은 갯벌, 백사장, 바위해안 등이 골고루 발달하여, 해양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남해는 따뜻한 쿠로시오해류의 영향으로 수온과 염분이 높기 때문에, 열대나 아열대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깔의 난류성 어류들도 많이 서식한다. 남해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어종은 고등어, 삼치, 전갱이, 방어, 멸치 등이다. 남해에서는 온대와 열대에 사는 다양한 수산자원이 어획되며, 바닷물이 깨끗한 청정해역이라 김, 굴, 우렁챙이와 같은 수산물을 기르는 양식장이 발달하였다.

남해에서 가장 수중경관이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보이는 곳은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해안선 길이가 254km에 달한다. 바위가 많은 제주도 주변 바닷가에는 해조류 숲이 무성하게 발달해 성게, 해삼, 말미잘, 전복, 게, 새우 등 여러 종류의 저서생물인 부유생물, 유영동물들이 서식한다.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 있

는 문섬 주변은 바닷속 경치가 아름다워 스쿠버다이버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이다. 꽃밭처럼 보이는 붉은 연산호 군락 사이로 파랗고 빨간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지구의 낙원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동해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중 최대 수심이 4,000m에 달하는 유일한 심해이다.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서로 만나는 곳이라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가을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강해지면 찬물을 좋아하는 명태와 대구가 알을 낳기 위해 모여든다. 또한 수온이 낮으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잘 자란다. 반대로 여름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가 강해지면, 난류성인 오징어, 고등어, 꽁치 등이 모여든다.

동해 한가운데 한국의 가장 동쪽 끝 섬인 독도가 자리 잡고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크고 작은 다수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졌다. 독도에는 파도가 깎아 놓은 해식동굴 등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으며, 수중경관 또한 수려하다. 독도의 해양생태계는 인간에 의한 환경 훼손이 심하지 않아 잘 보전되어 있다. 현재까지 독도 주변 바다에서는 100종이 넘는 어류가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수산자원 어류들은 조피볼락, 볼락, 흑돔, 돌돔 등이다. 또한 전복과 해삼 등도 독도에서 잡히는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마 난류가 북상하기 때문에 아열대해역에서 볼 수 있는 어류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랑돔은 열대와 아열대에 사는 어류로 한국 주변 바다에서는 제주도 부근에서 살지만, 여름에는 독도에서도 발견된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해양력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아시아는 유일한 연결통로

인 바다가 폐쇄되어 동아시아중해권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모든 지역과 국가 간의 물류, 문화 교류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해양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통로인 중요한 몇몇 해로를 장악하고, 해양조정력을 가진다면 여러 나라들 간의 역학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문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부산신항을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2006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신항은 이미 부산항의 중심 항만으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활약하며 상당한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철도, 항공이 연결된 복합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한반도 통일시대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계,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시발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자연의 힘에 도전하는 개발정책과 자연을 그대로 밟고 따르자는 환경보존론이 충돌하면서 한국의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연안이 늘 시끄럽다. 그 중에 한국 바다가 자랑하는 갯벌의 훼손과 폐해,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폐수 등은 진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갯벌이 건강해야 바다가 건강하고 바다가 건강할 때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가 건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 재인니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



지성감천

至誠感天

지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제 조우명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훈입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원래의 기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 아래 보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부장관령 147/PMK/04/2011>을 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재무부장관령은 보세구역 하청제한, 보세구역 위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하청을 주요 생산 방식으로 채택하는 현지진출 한국 섬유·봉제업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업체는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대사관과 한국봉제협의회(KOGA)가 인도네시아당국과 반복되는 협상을 벌이는 등 민관합동노력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봉제협의회의 자정결의대회를 큰 전환점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정부는 보세구역 하청허용과 위치제한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유예하는 재무부장관령 44/PMK/04/2012를 발표(2012년 3월 16일)하기에 이르렀다.

봉제 협의회 회장단은 “하청규정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모든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명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실무적으로 각 지역세관과의 협력과 평화의 구도가 유지되어야 본 개정령의 효력이 지속될 것인데, 벌써부터 사소한 범규위반사례들이 속출하여 지역세관에서 심한 의혹과 불신의 시선을 KOGA 측에 던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KBN공단을 관할하는 할림세관에도 수 건의 불법사례(소량의 원부자재 무단반출 등)가 적발되어, 소위 ‘자정결의대회’의 실효성에 대하여 할림세관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벌써부터 갖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지 급하다고 해서 또는 사소(경미)한 건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불법사례를 눈감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무마가 되었던 예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자정결의대회’ 및 그로 인해 얻은 결과물인 PMK44의 부메랑효

과인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법령개정으로 인해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관세청과 지역세관에서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시각이 언제든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인식하여야만 합니다.”라며 대다수 회원사들의 자정 노력이 평가절하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당국이 두 번씩이나 규정개정을 하고 보세구역 하청허용과 위치제한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노고가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려웠던 시기에 해외에 진출하여 수십 년 쌓아온 그간의 노력이 보람된 결실을 맺어 우리 젊은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달에는 한국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과 그간 힘들었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왔다.

◆ 봉제협의회(KOGA)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지요.

봉제협의회(KOGA)는 인니에서의 사업환경이 한국과는 많이 다른 만큼, 회원사들 간에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친목도모를 위하여 전 회원사를 초대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청규제 법안과 같이 회원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인니에 진출해 있는 봉제업체 수와 주력 상품은 무엇인지요.

KOGA에 등록된 봉제업체는 약 300여 업체이며 미등록업체를 포함하면 350여 업체가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과거에는 Heavy Jacket 류와 Ladies Woven 업체들이 많았지만, 2007년 이후 부터 Knit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여 지금은 전체 업체의 80% 정도가 Knit 업체입니다.

◆ 연초에 보세구역하청규제법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는데 폐지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보세하청규제는 시행 즉시 하청을 받는 공장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직격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봉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사안이었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 이후 폐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4개월여의 기간은 정말 저희 회원사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회원사가 한 마음이 되어 자정결의를 통하여 법규준수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이러한 저희 의지를 대사님께서 관계 요로에 적절히 전달함으로써 시행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법령을 폐지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 과정을 통하여 저희 KOGA는 이해 당사자로서 당연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김영선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께서는 저희 보다 더 노심초사 하시며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대사님과 관계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주신 KOTRA 와 KOCHAM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지요.

인니세관당국이 보세업체하청금지규정을 시행한 이면에는 일부 보세업체들의 법규위반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하청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세관당국의 각종 규제와 법규 준수에 대한 감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여 하청 금지 규정을 부활시킬 빌미를 주게 되거나 앓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에게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청금지로 인한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여 잘 견디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3월 자정결의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세 관련 법규 준수에 가일층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앞으로도 봉제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OGA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사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활발한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작 될 2013 지역별 최저임금 협상에서 회원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APINDO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에 회원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Sektoral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Sektoral 폐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 금년부터는 CSR의 일환으로 협회 차원에서 지역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며 금년 골프대회 시에 기금 조성을 위한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은 인니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오래 되셨나요.**

저는 96년 당시 ‘(주)대우’의 인니봉제법인장으로 인니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2001년에 현재 운영 중인 PT. Doosan을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금년이 사업을 시작한지 12년 되었습니다.

◆ **기업인의 입장에서 인니가 아직 동남아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니가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Jakarta 등 일부 지역은 노동집약적인 수출 봉제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봉제 산업의 축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지금의 임금 인상 속도라면 이들 지

역도 몇 년 지나지 않아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대안 부재론”입니다. 즉, 바이어 입장에서 인니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마땅한 대안 국가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점인데, 대답은 No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안 부재론 외, 인니 봉제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Upstream에 해당하는 원단 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인니 원단이 중국산 원단과 경쟁할 정도만 된다면 인니 수출 봉제도 장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니는 유달리 공휴일이 많은데... 이 때문에 생산이나 계획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인니만큼 모든 종교의 공휴일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공휴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일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단위 시간당 코스트가 경쟁국 대비 그만큼 더 비싸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휴일로 인한 생산 계획 수립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생산 단가의 인상 요인이 되어 그만큼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미 할 말은 위에서 다한 것 같습니다만..... 먼저 최근 한 회원사의 보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인니세관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원사는 자정결의한 대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로 우리 대다수 회원사들의 자정 노력이 평가절하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우리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사가 APINDO를 통하여 지역별 노사정 협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니의 빠른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인니만큼 사업환경을 갖춘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모든 회원사가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기존 규정 주요 내용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 1) 보세구역의 하청 제한
 - 종전 규정에는 보세구역에서 일부 하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규정에는 주요 공정은 하청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공정의 하청 금지를 명확히 함. 예를 들면 의류제조는 재단, 봉제 하청을 할 수 없게 됨.
- 2) 보세구역 허가기간 제한
 - 산업단지 지역은 종전의 허가기간까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비 산업단지역은 3년 또는 5년으로 허가기간이 제한됨.
 - 연장신청은 2012년 5월 23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중단됨.
- 3) 보세구역 위치 제한
 - 원칙적으로 공단지역 또는 공업 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지역에 있어야 하며 경작지역 보세구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만m²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 4) 보세구역 내수판매 제한
 - 종전에는 수출 또는 보세구역 총 판매액의 50%까지 내수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내수 판매 비율은 25%로 축소될 예정. 전자 등 내수를 주로 하는 현지 한국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5) 보세구역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제도
 -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를 구분해서 우수업체에는 감독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
- 6) 기타 의무
 - 관세청과 연계된 전산 프로그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재고 조사도 최소한 1년에 1회 시행하며 모든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신규 보세구역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재무부 장관령 44/PMK/04/2012)

- 1) 보세구역 하청 허용
 - 일부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하청용역을 허용하도록 함. 종전에는 주요 공정은 하청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공정의 하청 금지를 명확히 했었음.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했음.
- 2) 보세구역 위치 제한
 - 경작지역 보세구역은 종전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만m²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늘렸음.
 - 인도네시아 당국은 신청회사의 법규 준수도 관세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의 연장유무를 결정할 방침
- 3) 기타 : 보세구역 내수판매 제한과 위험 관리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됨.

기존 규정 주요 내용
(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

- 1) 보세구역의 하청과 위치 제한
 - 보세구역 하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위치제한은 보세지역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가능함.
- 2)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면세
 - 추가 가공을 위해 관세지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는 면제됨. 다른 보세구역 내 하청업체의 생산품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 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가 면제되나 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 내용은
이병수 봉제협회 사무총장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수엑스포 다녀와 보니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다녀왔다. 해양을 주제로 항구도시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인류의 해양문명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한국 디지털기술과 공연문화 그리고 건축디자인의 현재를 확인하고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됐다. 2012 여수엑스포 또는 여수박람회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번 행사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2일 개막해 8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인터넷으로 엑스포 입장권과 KTX 탑승권을 사고, 보고 싶은 전시관을 예약했다. 하루 일정이어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3시간 반 만에 여수엑스포역에 내려서 역사를 나서니 바로 엑스포장 제3문 앞이다. 미리 예매한 입장권을 보여주고 입장했다. 안내소에서 행사장 안내지도를 받아서 걸어 들어가니 양 옆으로 줄지어선 전시관 사이를 연결한 천정에 디지털 갤러리가 펼쳐졌다. 이어 들어가는 전시관들은 다양한 스크린을 통해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각국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근대 엑스포에서 총과 종이, 발전기와 비행기 같은 것들이 신상품으로 소개됐다면, 여수엑스포 신상품은 단연 IT 기술과 디지털기기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바다와 해양생물 그리고 선박과 해양장비들은 해양문화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었다.

세계박람회 또는 엑스포는 일반 무역박람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시초로 한다. 엑스포는 각국이 개발한 새로운 과학문명과 기술을 전시하는 장으로써 인류문명의 교류와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발전상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오늘날의 엑스포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문화 올림픽이 되어 참가국의 종합적인 국가홍보의 장이자

인류의 비전을 제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제관 3층에서 내려다 본 엑스포장과 바다는 시원함 그 자체였다. 관람을 하는 동안 햇살은 눈을 뜨기 힘들만큼 뜨거웠고, 바닷바람은 머리에 쓴 모자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강했지만, 광활한 푸른 바다와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현대적인 조형미 그리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야외공연은 굳이 전시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국제관에서는 인도네시아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관 등을 둘러보았다.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어딘지 다르게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어서 미리 예약한 한국관을 관람했다. 전통무용과 디지털영상을 조합해 우리 해양문화를 소개했는데 매력적이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관에서는 로봇의 발전사와 로봇 축구대회를 관람했다. 입장권 1장당 2곳만 인터넷 예약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당일 입장 후 예약할 수 있었으나,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아서 추가로 예약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곳들만 들렀다. 이렇게 들른 곳 중 기억에 남는 곳은 롯데관으로 8분 가량의 공연을 본 뒤 열기구를 타고 바다와 지상과 우주를 여행하는 것 같은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는 주제를 바다(Ocean)와 연안(Coast)에 한정할 만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노르웨이 같은 해양강국들의 전시관이 두드러졌고, 해양문명도서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베스트관 등에서는 인류의 해양문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엑스포장에서 오동도로 가는 길에는 이동식 바다숲과 수산체험장이 조성돼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고 했으나 일정이 빠듯해 가지 못했다.

엑스포를 관람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나라 인구 특히 고령인구가 많다는 생각이었다. 엑스포장을 찾은 날이 평일임에도 사람이 정말 많아서 어디를 가도 줄을 서야 했고, 사람 구경하러 온 것 같았지만 운영은 순조로웠다. 보도를 보면 당시 일일평균 방문객은 4만 명 수준이었고, 연휴였던 27일과 28일에 하루 11만 명이 찾아서 혼란이 극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엑스포장 수용력은 일일 5만 명 전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입장객이 많은 것이 수입이 늘어나 좋겠지만, 관람객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관람객만 입장시켜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관람이 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엑스포장에는 노인단체관람객들이 매우 많았는데, 어디서나 1시간 이상의 줄서기를 하고 전시장간 이동거리가 꽤 되지만 그늘이나 앉을만한 의자가 충분하지 못했다. 화장실도 야외에 있던 어린이나 노인이 찾아가기에는 다소 멀어 보였다. 더욱이 개장 초기만 해도 인기관을 관람하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해야 했다. 한편으로 편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IT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람자체가 불가능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5월 27일부터는 인터넷 예약을 폐지하고 줄서기로 대체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주말에는 인기관의 줄서기가 6~7시간으로 늘었다고 했다.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다.

엑스포장을 둘러보면서 전시기간이 끝난 후 이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번 엑스포의 슬로건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활동(Sustainable Activities)' 이므로 당연히 친환경적이어야 하지만 실제 엑스포 시설 자체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엑스포 준비를 위해 빌린 자금 4000억 원을 갚아야 하고 막대한 시설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엑스포가 끝난 후 대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를 읽었다. 멋있게 만든 시설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기업관은 철거를 예상하고 가건물처럼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엑스포도 사후활용이 제대로 안 돼 실패한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실제로 해양수산업이나 바다 관련 산업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나라다. 디지털기술과 공연예술이 수준급에 올랐지만 콘텐츠 창작과 개발이 더 필요한 나라다. 세계적인 IT 강국이지만 IT 소외계층과 이용계층의 격차는 커지고 있는 나라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 나라다. 여수엑스포는 한국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여수엑스포가 진정으로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Maluku, Ternate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물어야 할 이유를 잊었습니다.
장엄한 자연의 드라마 속에서 나는 단지 한 개의 점이었습니다...



아세안 지역 민간 대상 SNS 활용 교육

5월 25일 금요일, 대사관 주관으로 자카르타한국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외교통상부, NHN(네이버), 관광공사, 언론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미디어 홍보기법을 소개하는 ‘아세안 지역 민간 대상 SNS 활용 교육’이 개최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신속성과 전파력이 뛰어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쌍방향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SNS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하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2011년 국무회의 시 정식 직제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온라인 대변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4대강, 한.미FTA, 광우병 논란 등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우수 활동 사례이다. 현재 44개 부처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의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SNS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 ‘대국민 직접 소통의 창구’로 만들어 현지 재해

소식, 긴급뉴스 등의 신속 전파 및 행사 일정공지, 영사업무 등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현지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을 넓혀가려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SNS는 활발한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월간 ‘The PR’이 선정하는 ‘2011 스마트 정부 기관 어워즈’ 대상에 선정됐다.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외교통상부 문성환 실장은 구체적인 SNS 활용방법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NHN(네이버)의 me2day와 LINE의 사용법에 대해 강의와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공관이 국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좀 더 가까워지겠다”며 “SNS를 놀이처럼 즐기자”고 말하였다.

이날의 여러 가지 설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수단의 활용방안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사관, 수입자 인증번호(API) 제도 실시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자 인증번호(API) 관련 무역부장관령을 금년 5월2일부터 발효시켰다. 한 인기업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 수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사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처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수입인증번호(API)를 부여 받은 수입업자가 특정 물품 카테고리만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지만,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다. 부품을 수입해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해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 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아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 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 이라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인도네시아유럽상공회의소 소랜스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 고 난색을 표였다.

김영선 대사는 “대사관은 코트라, 코참 등과 함께 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인니 정부에 우리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대 사 관 알 림

1. 5.29(화) 10:00-11:30 미국대사관저에서 Scot Marciel 미국대사주관으로 주요국 대사들 간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김영선대사는 5.28 우리기업인 약30여명과 수입자인증번호(API)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하고, 동건 해결을 위해 주요국간 공동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EU 등 각국대사는 API관련 자국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브라질, 호주, 캐나다, 칠레 대사 등은 농산물, 쇠고기, 신선과일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관련 농업부 규정이 과도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공감을 표시함.

- 김영선대사는 인니측의 수입규제건들에 대해 참석한 대사들의 공동서한으로 주요국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의함.

* 서한에는 최근 수입규제 조치가 WTO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

- 결국 대사들간 협의 끝에 통상장관, 농업장관, 경제조정부 장관등과의 공동면담 또는 공동오찬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2. 대사관에서는 주요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API문제 등 수입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우리업체들도 특기할 만한 동향이 있으면 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무역부장관령’ 51면에 실림>

한국관세청 인도네시아 세관직원 대상 관세행정기법 연수



한 국관세청(청장 주영섭)은 5월 14일(월)부터 5월 24일(목)까지 11일간 인도네시아 관세청 국·과장급 직원 18명을 초청하여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세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행정기법 연수(3년 연속 실시)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3년차 연수로,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제도, 보세화물관리제도, AEO제도,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보세화물관리 제도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보세화물관리기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통하여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수 기간 동안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 관세청의 우수한 화물관리 시스템을 견학하게 하는 등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화물관리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요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사례로 올해 초에 보세구역업체의 하청을 제한하는 규제(‘11.9.)

로 인해 기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상당수가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연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기법이 향상될 경우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세청은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통관, 보세화물관리, 위험관리, AEO 등 여러 분야의 제도·시스템은 물론 이를 운영하는 문화를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전수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관세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관세행정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무역·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월드뱅크에서 주관하는 기업환경평가 통관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관세행정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관세청은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개도국들의 높은 벤치마킹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법연수 등 연간 약 40회, 400여 명의 개도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

KOFA 제2기 외장단 정기간담회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변화에 대한 관심 필요



KOFA(회장 송창근) 제2기 회장단이 2012년 두 번째 정기모임을 지난 5. 26. 가당라야CC Lotus Room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법령소개(5월인니상무부발령건)와 향후 임금정책설명회>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외국기업에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인도네시아정부의 법령과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체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헤쳐 나갈 방도를 함께 강구하는 자리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모임이었다.

35개 회원사가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관계당국 등에 전달되어 협력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조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송창근 회장은 2013년 임금대책을 위해 7월중 임금협상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사관과 경총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측 입장과 의견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유럽경제위기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 각자가 잘 대처해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신발업체의 주문량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로 이미 15%정도 감소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니의 전철과 국제공항 신설로 시야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정보와 이민국의 외국인끼따스 정밀점검, 토지수용법 등 알아야 할 필수정보가 많으며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변화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민국, 노동부, 검찰 합동으로 단속이 외국인끼따스 정밀점검 개시, 브까지 지역부터 - 비즈니스비자로 봉사, 선교활동이나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KBS방송국 ‘글로벌성공시대’ (담당PD 장강복)에서 간담회를 촬영했다.

장강복 피디 ; “회장님과 함께 직원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CEO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실제로 애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모든 경영인들이 이렇게만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성공시대에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공지침서라는 제작의도 하에 전 세계 글로벌리더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16일(토) 저녁 7시(한국시간), 신발협회 송창근 회장 편이 방영된다. 2011년에는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이 방영된 바 있다.



5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7회 동남아시아 한글학교협의회’의 교사 연수 참석차 동남아를 방문 중인 김경근 재외동포 이사장이 김영선 대사와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근 이사장은 “인도네시아는 화합이 잘되는 한인사회, 차세대를 육성하여 기성세대와 협력하여 나아가자”라며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안을 파악하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재외한인사회의 위상 강화와 화합을 강조했다.

김영선 대사 역시 “젊은 사람들의 장을 만들어주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포용하여 조화롭게 한인사회를 만들어나가자”며 같은 뜻을 밝혔다.

신기엽 한인회수석부회장은 “재외동포의 따뜻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시는 이사장”이라며 재외동포재단을 이끌어가는 김경근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997년 10월에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의 비영리기관으로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해외인재의 역량결집을 위해 매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15th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인사회 권익신장과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 및 산업 분야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하고 있다.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집공고 >

제15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The 15th Future Leaders' Conference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5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 포럼에는 상기 분야에서 약 100여명의 우수한 인재가 참여하여 활발한 정보교환과 교류의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래를 꿈꾸는 차세대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2012.10.2.(화)~2012.10.5.(금)
지 역 : 서울 그랜드힐튼서울(서울 홍은동)
참가자격 : 25~40세
영주권/시민권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주요활동 :

-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연설
- 분야별 포럼 및 주제강연
- 정부기관 방문 및 관련인사 예방
- 국내외 동포간 네트워킹 활동
- 국내 주요 언론사 인터뷰 및 취재 등

문의처 : 82-2-3415-0172(office),
jheakim@okf.or.kr

참 고 : 재외동포재단홈페이지
(www.korean.net, www.okf.or.kr)



자카르타에 경상남도 해외사무소 개소

경상남도는 5월 21일 11시, WISMA GKBI 빌딩 37층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해외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개소식에는 임채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박영식 공사, 한인회, 경상남도 출향 기업인, 자매결연 도시인 동부자바주의 투자청장 외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개소식을 갖게 된 경상남도자카르타해외사무소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기업 간의 수출 상담을 알선, 시장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활동과 일반 기관단체의 교류활동을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

경상남도가 이곳에 사무실을 개소하게 된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시장이 넓고 자원이 풍부해 경남도 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요 업무 외에도 재인니 교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남의 문화와 관광 홍보의 발판을 만들며 자매결연 도시인 동부자바주와 국제교류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작년 경상남도와 인도네시아의 교역을 보면 수출 545백만 불로 건설중장비, 무선전화기 등 통신, 금속, 중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은 2,139백만 불로 유연탄, 천연가스,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이 대부분이다. 2012년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경남 출향기업체 150여 개와 3,000여 명의 교민이 있다.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동부 자바주 와르노 하리사소노 투자청장 등과 지역간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임채호 경상남도행정부지사는 “동남아시아의 G20 회원국으로 ASEAN 의장국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라며 “경남의 산업과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윈-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인회 신기업 수석부회장은 “모두 함께 소통하는 한인사회, 나눔의 한인사회, 인도네시아와 같이 나가는 한인사회가 되어 모두 한마음이 되자”고 강조했다.

KOICA-UNESCO.기후변화교육을 위한 녹색학교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5월 18일~20일간 자카르타 술탄호텔에서 UNESCO 자카르타 사무소와 함께 “기후 변화교육을 위한 녹색학교 프로젝트”의 사업대상지인 남부 칼리만탄 반자르마신 교사들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에는 Arief Rachman 인니UNESCO 위원회 위원장, Anwar Alsaid UNESCO 교육팀장, 최성호 KOICA 소장 등 주요관계자와 반자르마신 중·고등학교 교사 60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ASEAN 및 한·중·일 교육전문가와 교사들과 사례학습, 그룹토론, 현지교사들의 자체 프로젝트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현지 교사들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의 질을 현지실정에 맞게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

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진행한 최미영 UNESCO 교육전문가는 “본 워크숍이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후변화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교사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KOICA는 이번 행사 중 물품공여식을 갖고 녹색학교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를 반자르마신 지역 20개 학교에 지원하였다.

금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사업대상지역인 반자르마신 지역 교사들은 KOICA와 UNESCO의 지원하에 2013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코트라>

대상그룹 미원인도네시아

경제자립 CSR 프로그램, 사랑의 Mama Suka마차(Pedagang Tangguh)

대상그룹 미원인도네시아(법인장 김두런)와 이트레이딩(대표 신재원)이 자선단체인 Dompot Dhuafa와 협약을 맺고 5월 30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립 CSR 프로그램, 사랑의 Mama Suka마차(Pedagang Tangguh)”를 런칭했다.

작년 11월 창립 38주년을 의미하는 1기 38명보다 많은 60명의 영세민이 올해 2기로 선정하여 사랑의 Mama Suka 마차와 운영비품, 식자재 4개월분을 지급했다. 또한 Dompot Dhuafa와 연계하여 조리 및 위생교육 등을 3회 실시하고 정기적인 방문과 컨설팅을 통하여 해당 가정의 경제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부형태가 아닌 경제자립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다른 CSR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모금활동을 시작한 이트레이딩은 연간 3억 루피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CSR 프로그램은 매년 사랑의 MamaSuka 마차를 증차하여 사업이 더욱 확



대될 예정이다.

미원인도네시아 김두런 법

인장은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생활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미원인도네시아는 재난구호활동 및 제품지원, 환경정화, 무료급식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다. 또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좋은 기업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주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 안국봉제협의회 사은의 만찬



재인도네시아한국봉제협의회(회장 배도운)는 5월 29일, 대사관과 한인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언론기관 및 KOGA 전임회장단을 초청하여 만찬

을 함께 했다. 재무부장관령 44/PMK/04/2012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대사관과 한인회 등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은 김영선 대사와 이득수 관세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영선 대사는 “이번 일을 통하여 한인사회가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훈장도 받아보았지만 지금처럼 기쁜진 않았다”고 화답하였으며,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는 한인회 승은호 회장의 건배사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만찬이 이어졌다.



Krakatau POSCO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코크스공장 연와(내화벽돌) 정초식 가져

Krakatau POSCO(법인장 김동호)는 5월24일 찰레곤에 소재한 일관제철소 코크스공장 건설 현장에서 포스코 장인환 성장투자부분장 주관으로 인니 산업부 Budi Irmawan 국장, Krakatau Steel Fazwar Bujang사장, Paul wurth Hansmann 사장, 포스코건설 안병식 부사장 등 주요 내외빈과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니 일관제철소 코크스공장 연와 정초식’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했다.

* 코크스(Coke)는 석탄을 코크스로에 넣어 1,000~1,300도의 고온으로 구운 것으로 철광석, 석회석등과 함께 고로내로 장입된후 열풍에 의해 연소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가 철광석과 환원반응을 일으켜 쇳물이 생산된다. 즉 코크스는 고로내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열원으로서의 역할과 산화철인 철광석에서 산소와 철광석을 분리하는 환원제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크스공장은 이태리Paul Wurth사 및 독일 DMT사가 설비를 공급하고, 축로공사는 조선내화와 포스코캠텍의 현지 합작법인인 IPCR에서 수행하게 된다. 금번 공사는 10개월동안 일일 최대 1,00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201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First coke를 시작으로 연간 130만t의 코크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내화물은 약 5만ton으로 일렬로 정렬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맞먹는 413km에 이른다.

통상 코크스 내화물은 축로후 40년동안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제철소의 단위 설비중 가장 긴 수명을 가지게 된다.

이날 정초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각자의 소망과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하는 휘호를 내화벽돌에 남겼는데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Great Challenge’라는 휘호를 보내며, 인니 일관제철소의 위대한 도전을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건설되는 코크스 공장에는 인니 현지에서 공급되는 원료탄을 사용할 수 있어 향후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5월1일 고로공장의 철판설치공사를 시작으로 기계전기설치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Krakatau POSCO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의 전체 공정진도율은 현재 21%수준이며 2012년말에는 70%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주말 휴일없이 진행되는 건설공사에는 일일 약4,500명의 작업인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Peak시기에는 약20,000명의 작업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6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2013년말부터는 상업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Krakatau POSCO는 슬라브 150만톤, 후판 150만톤 총 300만톤의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일관제철소로 태어날 것이다.

<기사제공 : Krakatau POSCO>

인도네시아우리은행 개점 20주년 고객사은행사 성황리에 개최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행장 최상학)은 5월 4일 BSD골프클럽에서 개점 20주년기념 고객사은행사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 1992년 한일은행 현지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상업은행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00년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재탄생하였다가 지난 2002년 현재 명칭인 인도네시아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은행 본점 이순우 은행장과 김병효 부행장, 유중근 부행장 등 임원이 서울에서 직접 참가하여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한인회 신기엽 수석부회장, 대한체육회 양영연 회장, 월드옥타 김우재 이사장 및 우리은행 고객사모임인 우리프레스티지클럽 이진수 회장 외 회원 등 140여 명이 참가하여 인도네시아우리은행 개점 20년을 축하했다.

우리은행 본점 이순우 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의 지난 20년은 오로지 교민과 고객들이 보듬어 주고 격려해준 시간이었다며 교민들과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에 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성공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객 편의를 위해 지점을 늘리고 현금, 체크카드 서비스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Infobank지 선정 15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중앙은행 경영종합감사결과 금융권 최초 1등급 획득, 은행연합회 (AFBI) 평가 ‘2011년 그룹별 경영성과 최우수 Top 3 은행’에서 그룹 1위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최우수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에도 적극 나서 대사관으로부터 CSR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우리은행 최상학 은행장은 “개점 20주년을 계기로 더욱 더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 되겠다”며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기사제공 : 인도네시아우리은행>





SK텔레콤 ‘잉글리시 빈English Bean’ 런칭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에 ‘멜론 인도네시아’를 보급하여 대표적인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자리매김시킨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이 영어교육용 스마트 러닝서비스 ‘잉글리시 빈(English Bean)’으로 인도네시아를 다시 찾아왔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플라자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업자인 텔콤(Telkom)과 영어교육용 스마트 러닝서비스 ‘잉글리시 빈(English Bean)’을 런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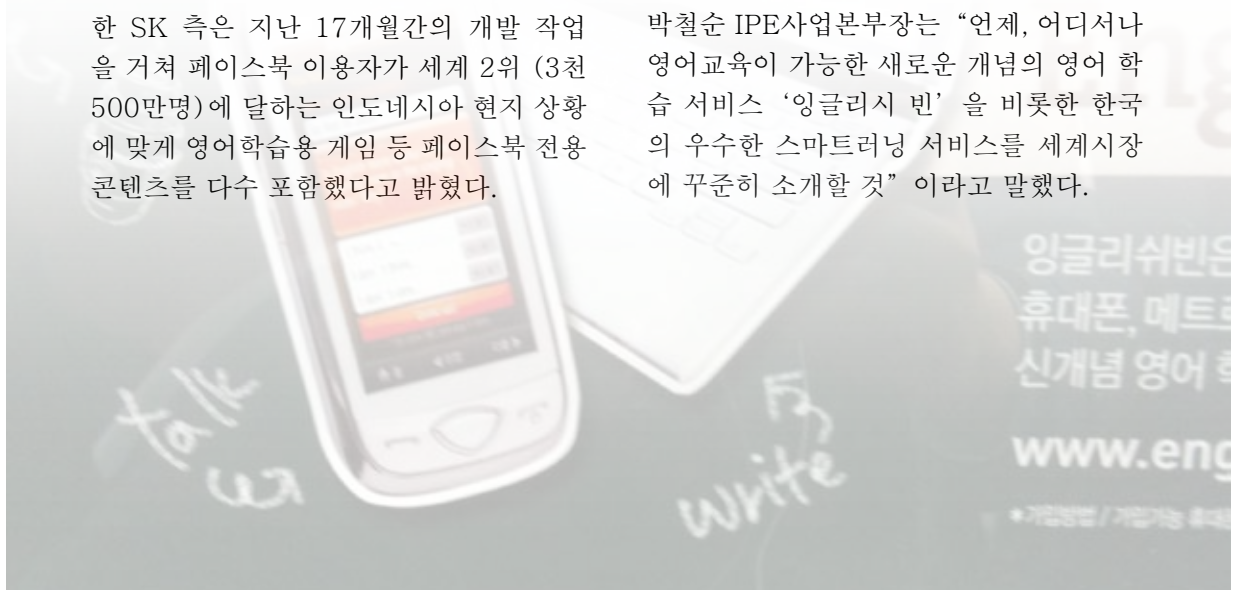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하는 ‘잉글리시 빈(English Bean)’은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한 SK 측은 지난 17개월간의 개발 작업을 거쳐 페이스북 이용자가 세계 2위(3천 500만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맞게 영어학습용 게임 등 페이스북 전용 콘텐츠를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잉글리시 빈’은 웹과 모바일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프로그램이다.

런칭기념식에는 박철순 SK텔레콤 IPE사업본부장, 인드라 우토요(Indra Utoyo) 텔콤 IT솔루션부문 사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대만 통신사업자와도 ‘잉글리시 빈’ 공동사업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잉글리시 빈’ 서비스를 대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및 동남아시아 2~3개 국가의 공교육사업진출을 논의 중이다.

박철순 IPE사업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영어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영어 학습 서비스 ‘잉글리시 빈’을 비롯한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세계시장에 꾸준히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참모총장배 전군 용무도대회 개최

5월 22일 클라빠가딩 스포츠 물에서 세계용무도 연맹 총재 김병천, 용무도협회장 이무찬, 인도네시아 특전사령부 등 용무도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참모총장배 전군 용무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용무도연맹 김병천 총재는 용무도 세계보급화에 앞장서던 중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보고 인도네시아 사관학교, 전략사령부, 교육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을 돌면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용무도를 홍보하여 대통령 경호실과 전 육군 공식무술로 채택되도록 이끌어온 인도네시아 용무도의 개척자이다.

세계용무도연맹은 지난 5월 19일 특전사령부체육관에서 인도네시아용무도협회를 조직 구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용무도협회 초대회장에 카토 중장을 임명하였다. 또한 용무도협회 이사장은 현 육군 참모총장인 에디 육군대령과 용무도협회 특임위원으로는 이무찬, 김동호(포스코사장), 박영수(K-TV사장) 등 68명의 군 임원을 임명하였다.

용무도는 2001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태권도와 유도, 합기도, 검도 등 기존 무술과 호신술의 장점을 혼합해 개발한 종합무술로 융합과 조화를 지향한다. 삼국시대의 화랑도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계 30여 개국에 보급됐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용무도를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처럼 군인무술로 지정해 수만 명의 병사들이 용무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용무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뛰어넘을 만큼 빠른 보급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 사범이 특전사 부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련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세계용무도연맹 순회시범단의 호신술, 낙법, 발차기, 대련 등 화려한 시범에 이어 각 부대별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5월 23일에는 포스코 주관으로 대통령궁 경호실에서 단증수여식과 세계용무도연맹시범단의 시범으로 이어졌다.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재인도네시아지회 창립발대식

6월 2일 토요일, 자카르타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해병전우회 김인식 총재(전 해병대사령관, 예비역중장)를 비롯하여 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 월드옥타(이사장 김우재), 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 등 각계 주요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인도네시아지회 창립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인니해병전우회(회장 김송정)로서는 대한민국해병대 전우회 중앙회로부터 <재인도네시아해병대전우회>로 인증 받으며 보다 폭넓은 활동의 근거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인니해병전우회(회장 김송정)는 1990년 6월 성인용 초대회장 외 회원 27명으로 창립되어 2012년 6월 현재 4대 김송정 회장을 포함하여 정식회원 71명과 비회원 22명, 총 93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JIKS장학금전달 및 불우이웃돕기 등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송정 회장은 “빨간명찰과 팔각모를 보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며 “한인사회 실무의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해병전우회는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해병대전우회 창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인회 승은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자카르타한국문화원 1주년 기념행사 시작 6월 2일 행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6월 첫 주 토요일, 자카르타한국문화원은 ‘외톨이야’ 등 K-POP 메들리에 맞춰 추는 탈춤과 질밥(히잡)을 쓴 젊은 인도네시아대학생들로 흥겨웠다. 작년 6월에 개원한 문화원이 마련한 1주년 기념행사가 6월 2일 행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주말마다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펼쳐진 것이다.

첫날 행사는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탈춤반이 막을 열었다. 두 번째 무대는 가야금연주자 조은경 씨의 ‘침향무(황병기 곡)’ 연주, 인도네시아

아전통춤이 세 번째 무대를 장식했으며, 빠뿌아 출신 여러 나라의 전통음악을 리믹스해 연주하는 퓨전음악가 이완누즈(Iwanouz)의 연주로 마무리됐다.

둘째 날, 9일 오후 5시에는 커버댄스 공연인 ‘K-POP을 사랑하는 팬들의 콘서트’를 열며, 셋째 날, 17일 오후 5시에는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오케스트라 마하와디트라(Mahawaditra)와 한인남성합창단 ‘자카르타아버지앙상블’이 공연하는 ‘클래식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매년 모시고 싶은 우리 어버이 땅그랑한인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5월 8일 어버이날,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 이세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낭시아(땅그랑 소재)의 체어맨카페에서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신 효도잔치는 칠순-팔순 노부부 네 분과 할머니 열 분 등 모두 열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땅그랑한인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음식과 여흥으로 신명을 돋우며 외국생활에 외로웠던 어른들 마음을 한껏 위로하며 기쁘게 했다.

땅그랑 한울림사물놀이패의 공연과 박의태 씨의 색스폰연주로 시작된 잔치에 강나루와 명가, 타임식당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음식준비를 아끼지 않았고 한국건강원에서는 바왕메라를 나눠드리는 등 훈훈한 정성을 보였으며, 잔치를 주관한 땅그

랑한인회 이세호 회장은 상품권을 전하며 친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애환을 달랬다.

매년 빠지지 않고 효도잔치에 참석하는 교민교회 김재봉 목사는 “한인회가 어르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찬사를 보낸다. 이런 일에는 종교를 떠나서 봉사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찬송가 외에 평생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열창하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세호 회장은 올 임기가 끝나고 임원단이 바뀌더라도 어버이날 행사만은 계속하도록 후임에게 인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제공 : 땅그랑한인회>



Fun! Fun! Fun!! Kids Festival

어린이날 맞아 한국문화원에서 주최



5월 5일, 한국문화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Fun! Fun! Fun!! Kids Festival>이 오로라 월드(법인장 홍기호)의 후원으로 재인니 한인미술협회(회장 이은수)와 국제아동미술대회 입상자 한-인니 어린이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Fun! Fun! Fun! Kid Festival>의 Fun1 - Movie, Game world로 인터넷게임과 오세암, 마리아야기, 뽀로로 등 한국에서 절찬리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이 영어자막으로 방송되었으며, Fun2 - Our world는 지난 4월 15일 있었던 국제아동미술대회의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Fun3 - Character world는 오로라에서 협찬한 캐릭터들과 사진찍기, 놀이기구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풍성한 프로그램과 행사기간 동안 전시된 수상작품이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제2회 국제아동미술대회는 137명의 지원자 중 총 20명의 어린이가 입상했으며 한수민(10살)양의 <Bali Starling>과 Felicia Renata kurniawan(11)양의 <Hello Korea>가 영예의 1등상을 수상했다.

한수민(10살)양은 “인도네시아의 Bali Starling이란 새가 멸종위기에 있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고, ‘Hello Korea’를 그린 Felicia Renata kurniawan(11)양은 “동생과 같이 참가했는데 나만 상을 받아 아쉽지만, 상을 받음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 좀 더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꿈과 행복을 판다’는 오로라월드의 홍기호 법인장은 “문화원을 통해 어린이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준비가 미비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한국문화원 학예사 김은지 씨는 “만화 속 캐릭터들을 직접 만나면서 동심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했다”며 “이번행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5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재인니한인음악협회 제12회 청소년음악회 개최 청소년들이여,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5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재인니한인음악협회(회장 이일하)에서 주관하고 SPL Logistics가 후원한 제12회 청소년음악회가 Yamaha Music Center Building에서 김영선 대사와 한인음악협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청소년음악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게임 등 현대 문명에 빠져들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정서회복과 품성을 기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1년 첫 음악회를 시작으로 12번째 맞이하는 이번 음악회는 총 23명이 참가하였으며, 지난 4월 7일 직스에서 오디션을 통과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모차르트의 실내작품 가운데서 특히 찬연하게 빛나는 Quintet A Major Kv. 581 Allegro를 클라리넷 11중주(김태영 JIS11 외)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된 음악회는 피아노, 플롯, 첼로 등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가곡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뜻 깊은 무대로 이어졌다.

이일하 음악협회장은 “음악협회는 청소년들에게 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준 학생들에 감사하다” 고 말하며 참가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청소년음악회가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음악의 생활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출연자 & 연주곡

Clarinet 11중주 김태영 (JIS 11) 외 10명 Quintet A Major kv.581. Allegro./W.A.Mozart
Piano 임희진 (JKS 10) 무언가/Mendelssohn
Vocal 이진옥 (JIS 10) Nella Fantasia Morricone/Chiara Ferrau
Piano 이정효 (JKS 7) Impromptu Op.90. No.2/F.Schuert
Clarinet 4중주 권태웅 (SIS 9) 외 3명 Magic Flute/W.A.Mozart
Flute 김경민 (JIS 10) Nocturne et Allegro Scherzando/Phlippe Gaubert
Piano 김다빈 (JKS 11) Etude de Concert No.3/List
Cello 이에림 (JIS 10) Concerto No.1. A minor Op33./Saint Saens
Flute Duo 장미니 (SIS 10). 도유정 (JIS 8) Andante Rondo Franz Doppler

제2회 샹뮤직아카데미 성악발표회



꽃보다 예쁜 7명 아이들이 ‘pokarekare ana-연가’ 곡으로 무대의 서막을 열었다. 6월 2일 연합교회에서 열린 이번 성악발표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무대이다. 안영수 부원장은 인사말에서 “첫 회 때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힌 후 Bravo/Baravo/Bravi의 의미와 출연진 연령대가 5세 미만 아동부터 60세가 넘는 어른까지 말 그대로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회라고 이번 음악회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엔 새롭게 결성된 ‘자카르타아버지양상블’을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정들로써 순수아마추어 남성합창단이다. 합창단의 데뷔를 이번 성악발표회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합창단을 환영했다.

성악발표회는 바리톤 김상태의 감미로운 <사월의 노래>로 시작되어 소프라노 김희순의 <주의 기도>, 테너 김명찬의 <뱃노래>, 소프라노 조은영의 <IL BACIO-입맞춤>, 테너 민병석과 소프라노 한혜경의 이중창 <TIME TO SAY GOODBYE>, 이진욱(JIS 10)의 뮤지컬 JIKILL

& HYDE ; THIS IS THE MOMENT-지금 이 순간>, 바리톤 임경필(JIS 12)의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 NON PIU ANDRAI>, 베이스 류태하의 오페라 <DIE ZAUBERFLOTE ; O ISIS UND OSIRIS>, 샹뮤직아카데미원장 심상준의 클라리넷독주, 소프라노 조은숙의 오페라 <GIANNI SCHICHI ; O MIO BABBINOCARO>, 테너 전종영의 <PIRTA SIGNORE>, 테너 신돈철의 <CORE’ N GRATO> 곡으로 솔로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자카르타아버지양상블’이 베토벤의 <DIE HIMMEL RUMEN-신의 영광>이라는 웅장한 곡으로 음악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들은 두 번째 곡으로 <빨간구두아가씨>와 <아빠의 청춘> 두 곡을 절묘하게 리믹스하여 출연진과 객석이 함께 웃으며 노래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해바라기의 노래 <사랑으로>를 관객과 합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이루어낸 샹뮤직아카데미 성악발표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며 매년 6월에 열린다.

(사)한*인니문화연구원 214회 기업문화-맘뽕탐방

5월 23일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성공하는 기업보다 함께하는 기업,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의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 P.T KMK(회장 송창근)로 기업문화탐방 및 맘뽕 탐방에 나섰다.

P.T KMK는 송창근 회장이 1988년 단돈 300불을 가지고 시작하여, 현재는 신발제조와 판매로 2만여 명의 종업원과 연간 2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시킨 기업으로 네 곳의 공장에서 전 세계 최고브랜드인 나이키, 컨버스, 인도네시아에서 1위 신발브랜드인 이글(EAGLE), 헌터(HUNTER:패션고무장화 생산)를 생산 중이다.

송창근 회장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신뢰’를 나무에 비교하고, 나무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진실성, 토양은 뿌리가 뻗을 수 있는 의욕, 즐기는 능력, 열매는 결과라고 정의했다. “도덕성과 의욕이 사람의 성품을 결정짓는다면, 능력과 결과는 그 사람의 역량을 나타낸다”며 우리의 아이들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P.T KMK는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42개의 축구팀, 다양한 동아리활동,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외에도 의사, 간호사, 보조 등 총 80여 명의 의료진과, 응급실, 약국, 간단한 수술실, 입원실을 갖

추고 사내 클리닉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직접 돌보고 있다. 사내 클리닉은 전 종업원을 무료진료하며 특히 토, 일요일에는 사원가족들에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다.

회사투어가 끝난 후 KBS 촬영팀(글로벌성공시대 6월 29일 방송 예정)과 합류하여 한인니문화연구원 탐방 팀, 약 50여 명의 회사종업원과 함께 종업원들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송창근 회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두 차례씩 종업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등 공감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종업원 중 한 명인 수기 양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방문한 송창근 회장과 탐방팀은 “수기 할머니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늘의 한 자손이다”며 병원비를 지원해주며 쾌유를 빌었다. KBS 촬영팀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며 아버지를 여윈 한 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인니문화원은 선물로 준비한 설탕, 라면 등을 전달했으며, P.T KMK의 음악동아리 팀들의 자선공연 등 볼거리를 즐기며 지역주민들과 P.T KMK, 탐방팀 모두 한마음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3년 세계한상대회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올해 제11차 대회장에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 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경근)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에서 제 20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광주광역시로 선정하였다.

운영위원 23명은 이날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3개 지자체의 발표를 들은뒤 투표를 통해 광주광역시를 차기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3차례의 도전 끝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부산광역시는 과거 세차례,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례 한상대회를 개최했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 결정과 관련해 “광주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필요

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150만 광주시민의 꿈이 이루어졌다. 모든 준비와 정성을 다해 2013년 세계한상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소네트 그룹 (SONETTE, INC.) 조병태 회장을 선출했다. 조병태 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상대회를 오랫동안 참여해온 만큼 금년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국제 비즈니스 컨벤션이다.

‘글로벌코리아의 힘, 한상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열릴 제11차 세계한상대회 (THE 11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는 2012년 10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40개국 약 3,300여명(국내 2,200명/국외1,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 한 컷 > 한국의 봄

전국 최고의 철쭉 군락지 지리산 바래봉이 철쭉이 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절정을 이루었다.

해발 1천 165m의 바래봉 일대 100ha를 붉게 물들이는 철쭉군락지는 향기가 진하며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으로 산 전체를 하늘정원으로 만들며 매년 수십만 명의 탐방객을 불러 모은다.



자카르타의 5대 동상 그 첫 번째

불멸^{不滅}의 특급 오성장군 수디르만 *Sudirman* 동상

JL. Sudirman <BNI 건물 앞>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수디르만 장군 동상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는 출정직전의 군인의 위엄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수디르만 장군은 네덜란드 재침략에 대항하여 족자에서 게릴라전을 총지휘한다. 장군은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다짐하는 그때의 그 모습을 동상에 담은 것이다. (1948년 12월 19일) 심한 결핵을 앓고 있는 그는 주로 긴코트 차림이었다

자카르타의 5대 동상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수디르만 동상은 높이가 6.5m이고 동상받침의 높이가 5.5m 포함해서 총 높이가 12m이며, 무게가 4톤이다. 예술가이며 반동공대 교수 수나리오(Sunaryo)는 다른 작품과 달리 이 동상은 자카르타 정부가 원하는 모양대로 제작했으며, 사업가들이 후원을 했으며 총 35억 루피아가 들어갔다. 예술가 수나르노는 이 동상을 제작하고 1억을 받았다고 한다.

이 동상은 국가기념탑 모나스(Monas)와 직선 거리에 자리한다. 자카르타의 4대 동상, 슬라맛다땅(Selamat Datang), 영웅 동상(Patung Pahlawan · 빠똥 빠홀라완), 건설하는 청년 동상(Patung Pemuda Membangun · 빠똥 뿌무다 므방운), 하늘의 아버지 동상(Patung Dirgantara · 빠똥 디르간따라)이 모나스를 향하듯이.

2003년 8월 16일. 당시 자카르타의 시장 수띠요소(Sutiyoso)가 자카르타의 공원처장 마우리츠 나삐뚜뿔루(Maurits Napitupulu)와 수디르만 장군의 친척 대표자 하눔 파이니(Hanung Faini)와 함께 동상의 준공식을 가졌다. 거수경례를 하는 사람은 수디르만 장군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군에게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고 파이니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진처럼 장군의 이미지는 주먹을 짝 쥐고 수카르노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죽을 때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있다.

이 사진은 독립선언서작성박물관(Museum Perumusan Naskah Proklamasi, Jl. Imam Bonjol No.1 Menteng), 45년 독립투쟁박물관(Gedung Joang 45, Jl. Menteng Raya No. 31) 등에 전시되어 있다.

수디르만 장군은...

족자 Banyumas에서 1916년 1월 24일 향후 인도네시아의 혁명가가 될 아이 Sudirman이 태어났다. 아버지 Karsid Kartawiraji와 어머니 Siyem



사이에서였다. 그후 의붓아버지 Raden Cokro Sunaryo가 원명 앞에 Raden이란 직함을 붙였다. Taman Siswa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나서 Solo의 HIK Muhammadiyah 교육 대학에 입학하였다. 1934년에 이슬람교 단체에 열정을 쏟던 수디르만은 Cilacap의 Muhammadiyah 초등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마음이 넓고,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포용력이 있는 교장이었다.

본부가 Bogor에 있는 PETA (Pembela Tanah Air)라는 국가방어단체에 가입할 때부터 군 경력이 시작된다. 훈련이 끝나자 Banyumas의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한 지 몇 주 지나서 일본은 인도네시아 연합군에 무기를 넘기기로 하였다. Banyumas 지역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Sudirman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썼다. 참을성이 있고, 인격적이고 아버지답게 부하들을 잘 지켜주는 Sudirman은 1945년 12월 8일에 인도네시아의 인민군 보안 (TKR, Tentara Keselamatan Rakyat) 지휘관에 공식 취임되었다. 당시 나이가 29세였던 Sudirman은 단호하고 현명한 결정으로 유능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연합군에 다양한 세력을 결합시

키는데 성공하여 TKR 인민군보안군에서(후에 TRI(Tentara Rakyat Indonesia)로 명칭이 바뀜) 1947년 6월 3일에 마침내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TRI가 ABRI (Angkatan Bersenjata Republik Indonesia : 인도네시아국군)란 명칭으로 바뀌었을 때는 ABRI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독립전쟁을 인도하였던 장군은 심한 결핵을 앓고 있었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수디르만 장군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수디르만 장군은 “아픈 사람은 장군 수디르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 수디르만입니다. 장군은 아파도 안되고 나약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치료를 거절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38세(1916년~1950년)의 젊은 나이로 인니인들에게 사랑과 용기·애국심을 심어주고, 1950년 1월 29일 중부자바의 마글랑 (Magelang)시에서 장군은 서거(逝去, wafat)한다. 독립영웅이란 직함으로 족자의 스마끼(Semaki)에 있는 꾸수마 느가라(Kusuma Negara) 영웅묘지에서 잠들어 있다. 1997년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장군들(수하르또, 나수떠온)같이 특급 장군 직함을 얻었다.

수디르만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장군과 관련된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자카르타 외에 족자와 수라바야에 수디르만 장군 동상을 제작하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큰 도시들에는 ‘수디르만’ 이름을 중요한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중부자바의 뿌르워끄르또(Purwokerto)에는 수디르만장군대학교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카르타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리(잘란)가 수디르만이다. 수디르만 장군은 반쪽의 폐로 숨쉬기가 힘들어도 국가와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개탄하며 애써 켈리라전을 지도하였다. 건강이 악화되어서도 가마를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계곡을 건너고 산을 타며 군대를 지도하고 게릴라전 전략을 세웠다. 족자에서 말랑까지 7달 동안은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 능선 위로 굽이치는 비를 맞으며 그렇게 하였다. 육군중앙박물관(Satriamandala Armed Forces Museum, Jl. Gatot Subroto 147)에는 수디르만 장군방이 있고 그곳에 그때의 그 가마가 전시되어 있다. 그 가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아 목울대를 지국이 누르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다. 어디서나 가룟 유다(Judas Iskariot)는 있는 법.

수디르만은 무명의 한 군인으로부터 배신당하였다. 그 배신자는 네덜란드군인에게 수디르만의 은신처를 알려주고 포위당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전략작전이 뛰어났던 수디르만 장군은 군대들과 함께 사롱을 입고 빼찌(peci) 모자를 쓰고는 코란을 공부하는 척해서 네덜란드군인을 속였다. 배신자는 감사한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한 네덜란드 군인에게 총살당한다. 게릴라전이 끝나고 네덜란드 군인들이 돌아가자, 마침내 수디르만 장군도 1949년 7월 10일 군대를 이끌고 족자로 돌아온다. 족자 사람들은 반쪽 폐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독립 전쟁을 지휘한, 자랑스러운 수디르만 장군을 온몸으로 맞이하였다. 사실 게릴라전 동안 수디르만은 체력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가끔씩 쓰러졌고, 그래서 더욱 창백하고 마른 몸으로 세계악에 갇혀있는 약소국 인도네시아의 운명 앞에서 처절하게 투쟁한 장군을 족자에서 다시 맞이할 때 모든 날들이 새로웠을 것이다.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었던 치열한 전쟁에 용감히 참가한 수디르만 군대 군인들도 수디르만의 병색이 완전한 바삭 마른 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성하던 반쪽 폐마저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수디르만 장군은 판띠 라삐(Panti Rapih)에 입원하였다. 수디르만 장군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 회의나 의논을 병원에서 하였다. 결국 1949년 8월 1일에 군인직을 사임한다는 탄원서를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그의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원서 내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소유하는 단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국민군이다’라고 쓰여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디르만 장군의 투쟁을 영화로 만들고 있다. 2012년 7월에 상영될 이 영화의 첫 편은 쥘라잡(Cilacap)에서 Muhammadiyah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는 장면, 두 번째 편은 족자에서 투쟁하는 장면, 마지막 3편은 독립혁명이 일어날 때 게릴라전에 참가하는 장면으로 구분되어 3편으로 제작된다. 이 영화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사람, 특히 청소년들이 애국심과 협동심, 리더십, 열정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곳에 가면 꿈과 희망을 외치며 시대정신을 선도하고 있는 그를 뒤돌아보게 만든다. 수디르만 장군은 잘란 수디르만 입구에서 오늘도 외친다.

“인도네시아는 피와 땀, 굳은 의지로 독립을 얻었습니다. 장군은 절대로 나라가 위급할 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를 지킬 것입니다.”

1948년 12월 네덜란드 군에 대항하기 위해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다짐했던 그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슴 속에, 수디르만 장군의 영웅정신은 영원히 남아 길이 전해질 것이다. 수디르만 장군은 오늘도 코트자락을 휘날리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7월호, 동상 슬라맛다땅Selamat Datang 연재>



Jogja Kembali



2012년 코카콜라컵 축구 리그 준우승

JIKS 축구부, 2012년 COCA-COLA SCHOOLS FOOTBALL LEAGUE A - LEAGUE U-16 경기에서 여러 쟁쟁한 팀을 제치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자카르타 소재 학교 U-8세부터 U-16세까지 20개 학교 3,000여 명의

선수가 각 리그별 리그전을 치르는 경기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경기이다. JIKS축구부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유망주보다는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으로 구성된 순수 동아리팀으로 주 1회 방과 후 연습을 했으며, 금년에 김배진 감독을 영입하여 더욱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이번과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관련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 및 한국 축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내재된 특기를 계발하여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부모 연수’ 마쳐



지난 4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1회씩 총 5회(10시간), 자기주도학습-1차 함께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였다. 자기주도학습 학부모연수는 JIKS 조성백 교사에 의해 ■습관만 바뀌도 세상이 바뀐다 ■성적 오르면 스마트폰 사줄게~ ■진로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라 등

10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아카데미는 JIKS에 자기주도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 사교육비 감소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반 및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JIKS 학부모는 물론 다른 국제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하여 129명이 등록, 수강하였으며 수강 참여도가 우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인증서’를 77

명에게 수여하였다.

성공적으로 실시되는 JIKS의 학부모 대상 연수는 아버지 들에게도 확대하여 2학기에는 야간에 실시하는 ‘함께하는 자녀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 홈페이지(www.jik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가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2012년 6월 9일(토) 10:00-12:00
◎ 장 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JL. Bina Marga No. 24 Kel. Ceger, Jakarta Timur, 13820)
◎ 대 상	서울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
◎ 내 용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전형
◎ 발표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백순근 교수 (교육학과) 입학관리과장, 입학사정관

<문의사항>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021-844-4958(Ext.302)

서울대 입학본부 82-2-880-6977 snuadmit@snu.ac.kr

서울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교사동아리 ‘천사의 유혹-바리스타과정’ 수료

커피교사동아리가 만들어져 3월 19일부터 4월 23일에 걸쳐 총 10시간의 ‘Understanding Coffee Drip Course’를 커피마스터 이진호 강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잘 끝마쳤다.

이번 바리스타 과정은 JIKS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2010년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고공 수제 커피의 달인’을 초청하여, 초중등 교사 18명이 참

여하여 JIKS 다목적실과 끌라빠가당에 있는 카페 미즈모렌에서 함께 실시했다. 연수내용은 커피의 유래와 역사, 커피의 종류와 상식, 커피와 관련된 기구 사용법, 다양한 커피추출법, 현장실습 및 테스트 등을 통하여 좋은 커피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앞으로 JIKS 커피교사동아리에서는 커피와 관련된 교육, 크고 작은 학교 행사와 자선 바자회 등 커피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참여해서 커피향기의 매력적인 효능감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바리스타(Barista)란 에스프레소 추출 전문가로서 이탈리아 어원을 따르면 ‘Bar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조리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뿐 아니라 그 자체가 완벽한 서비스와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스에는 지스아카데미가 있다

박 용 희 / 한인뉴스 학생기자

자카르타국제학교(이하 지스)에도 여름방학이 거의 다가왔다. 학생들은 학년의 끝을 기 대하여 여름방학을 준비하지만, 학교는 새로운 시작을 대비하며 준비한다. 지스는 지스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마다 지스학생과 지스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장점을 발달시키고 재능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의 장점은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술, 기술, 그리고 운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건강, 예술, 과학, 그리고 자기계발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건강분야에서는 9가지 운동 프로그램(축구, 농구, 테니스, 암벽등반, 인도네시아 전통무술, 수영, 태권도, 배드민턴, 핸드볼)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각 운동의 기술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팀워크와 사회적인 능력도 배울 수 있다. 예술분야에서는 미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사진, 발레, 그리고 연극에 관한 프로그램들도 제공한다. 음악분야에서는 5가지 악기(트럼펫, 색소폰, 첼로, 바이올린, 기타)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에서는 악기를 연마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분야에서는 사진에 관한 기술과 처리 작업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친다. 발레와 연극 분야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론보다는 참여적인 수업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마지막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무대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뽐낼 기회를 제공한다. 지스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과학은 순수과학보다는 기계공학(robotics)에 가깝다. 저학년 학생들은 레고를 이용한 공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재미있게 배운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레고를 통해서 만든다. 고학년 학생들은 실제 회로와 기판을 이용하여 로봇을 다자인하고, 좀 더 구체적

인 개념과 이론을 배운다.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전수해 주는 프로그램들이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십, 학구열, 창의력, 긍정적인 마인드, 팀워크 등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SAT, ACT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또한, 학교 정규수업을 방학 동안 들을 수 있게 해준다. Indonesian studies, Health, 그리고 Environmental science 수업을 지스아카데미를 통해서 방학 동안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미국 적십자사가 인정하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 사업에 관해 배우고 실습해보는 프로그램들도 매우 흥미롭다.

지스아카데미는 지스 재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지스 아카데미의 인솔자들은 대부분 지스 재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약간의 보수를 받고 인솔자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과외활동은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된다.

지스아카데미에도 문제점은 있다. 너무 저학년 위주의 프로그램들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학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공부적인 요소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학년들에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외활동도 똑같이 중요하다. 지스아카데미가 고학년들에게는 너무 공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만 제공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과외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요구를 못 들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정보 웹사이트 <http://www.jisedu.or.id/schoolwide/jis-academy/index.aspx>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실시 관련

- 자료 : 자카르타무역관 -

1.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

- ‘Business Development’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수입을 가능토록 했으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 제조 품목과 유사한 상품도 수입이 가능토록 규정을 운영

◆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

◆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12년 2월 위헌 판결을 내림

◆ 인니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

2. 주요내용

① 기본 골자

가.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함

◆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 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함

나.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음.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

◆ 수입자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구 법령에서 발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 법령에 맞게 재 발급되어야 함

② 수입 가능 품목 및 의무

가. API-U 보유기업

◆ 인니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나. API-P 보유기업

◆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 수입 할 수 있음.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 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

◆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 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 가능.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음

◆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함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 (Import Realization)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3. 주요 영향 및 반응

◆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 제기

◆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아안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 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

◆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4. 참고사항

◆ 무역부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와 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능한 품목을 31개(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여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

그룹	품 목	HS code
1	LIVE ANIMAL, ANIMAL PRODUCT	01.01 ~ 05.11
2	BOTANICAL PRODUCT	06.01 ~14.04
3	FAT AND ANIMAL OR BOTANICAL OIL AS WELL AS DISSOCIATION PRODUCT; EDIBLE PROCESSED FAT, ANIMAL NIGHT, BOTANICAL NIGHT	15.01 ~ 15.22
4	PROCESSED FOODSTUFF; BEVERAGE, ALCOHOL AND VINEGAR; TOBACCO AND FABRICATED TOBACCO SUBSTITUTE	16.01 ~24.03
5	MINERAL PRODUCT	25.01~27.16

6	CHEMICAL INDUSTRIAL PRODUCT OR RELATED INDUSTRIAL PRODUCT	28.01~38.26
7	PLASTIC AND ITS PRODUCT; RUBBER AND ITS PRODUCT	39.01~40.17
8	RAW SKIN, TANNIN SKIN, FEATHERED SKIN AND ITS PRODUCT, SADDLERY AND HARNESS, TRAVELING ITEMS, HANDBAG AND SIMILAR ITEM; ANIMAL-INTESTINE-MADE ITEM (OTHER THAN SILKWORM THREAD)	41.01~43.04
9	WOOD AND WOODEN ITEM, CHARCOAL, CORK AND CORKY ITEM, STRAW-MADE ITEM, ESPARTO-MADE ITEM AND OTHER PLAITED ITEMS; BASKET AND PLAITED ITEMS	44.01~46.02
10	PULP MADE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PAPER OR CARTON PAPER (RESIDUE AND SCRAP); PAPER AND CARTON PAPER AND ITS PRODUCT	27.01~49.11
11	TEXTILE AND TEXTILE PRODUCT	50.01~63.10
12	FOOTWEAR, HEADGEAR, UMBRELLA, SUN UMBRELLA, WALKING STICK, SITTING STICK, WHIP AND ITS PART; PROCESSED POULTRY FEATHER AND ITEMS MADE OF IT, ARTIFICIAL FLOWER; ITEMS MADE OF HUMAN'S HAIR;	64.01~67.04
13	ITEMS MADE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OTHER SIMILAR MATERIAL,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MADE ITEMS	68.01~70.20
14	NATURAL PEARL OR CULTIVATED PEARL, PRECIOUS STONE OR SEMI-PRECIOUS STONE, PRECIOUS METAL, METAL COVERED BY PRECIOUS STONE AND ITS PRODUCTS; IMITATION JEWELRY; COIN	71.01~71.18
15	NON-PRECIOUS METAL AND ITEMS MADE OF NON-PRECIOUS METAL	72.01~83.11
16	MACHINES AND MECHANIC EQUIPMENTS, ELECTRIC EQUIPMENTS; ITS COMPONENTS, TELEVISION SOUND AND IMAGE RECORDER AND REPRODUCER AND COMPONENT AS WELL AS ACCESSORY THEREOF	84.01~85.48
17	VEHICLE, AIR VEHICLE, WATER VEHICLE AND RELATED TRANSPORTATION EQUIPMENTS;	86.01~89.08
18	INSTRUMENTS AND APPARATUSES OF OPTIC, PHOTOGRAPHY, CINEMATOGRAPHY, MEASURER, EXAMINER, PRECISION, MEDICAL AND SURGERY; CLOCK AND WRISTWATCH; MUSICAL INSTRU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92.09
19	WEAPON AND AMMUNITION, COMPONENTS AND ACCESSORIES THEREOF	93.01~93.07
20	VARIOUS MANUFACTURED GOODS	04.01~96.19
21	ARTWORKS, COLLECTION ITEMS AND ANTIQUE ITEMS	97.01~98.03

자카르타한국문화원이야기

자료제공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견학프로그램 (Study Tour)

2012년 4월 30일, 한국문화원의 다목적홀인 한인실이 SMPN1 학교 학생 180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차로 8시간이 걸리는 중부 자바 KEBUMEN 지역에서 자카르타까지 온 학생들은 약 3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문화원에 대한 소개, 한국의 역사, 문화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노트 필기뿐만 아니라 준비해온 디지털 카메라로 강의를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진행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한국문화원이 준비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는데, 아이돌 그룹 '슈퍼 주니어'의 포스터를 받은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인도네시아에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제기차기체험, 한복체험,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시간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난생처음 제기를 차보는 학생들의 어설픈 몸짓에 한인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고, 알파벳 발음이 적힌 한글 발음표를 하나 짚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일순간 진지함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MPN1 KEBUMEN학교 학생들이 한국문화원에 선사하는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으로 양국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SMPN1 교의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원에서 보낸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한복 체험 (Hanbok Experience)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한국문화원이 고운 한복의 색으로 넘실댁니다. 바로 '한복체험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위치한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인근 땅그랑과 보고르 등에 거주하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복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을 찾고 있습니다. 1회 평균 100명이라는 높은 참여율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한복을 입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문화원 곳곳에 비치된 한국 공예품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김춘수 시인의 시 '꽃'으로 디자인된 아름다운 한글벽은 기념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는데,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복의 색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또 한국문화원을 찾고 있어 한복 체험행사는 한국과 한국문화원을 인도네시아에 알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한복체험 기념사진 콘테스트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 2913명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은 우승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복체험행사는 단순한 전통문화체험을 넘어 SNS를 이용한 소셜 마케팅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한국전통공예 클래스

(Kelas Kerajinan Tangan)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한국 전공 공예품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2012년 4월 13일부터 한국문화원에서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

로 한 ‘한국전통공예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전통 공예 교실은 매달 사극 드라마를 한편씩 지정하여 그 드라마에 등장한 전통 공예품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4월에 선정된 드라마는 2012년 상반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해를 품은 달’이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를 품은 달’에 등장한 장명루, 배씨댁기, 한지 보석함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만든 작품을 직접 실생활에 사용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공예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예품의 유래와 한국의 풍속 등을 TV드라마와 함께 배우기 때문에, 딱딱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닌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4월 강좌가 모집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열띤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반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강좌의 수강생은 5월 중순경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 문화원의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한국영화 상영 (Love K-MOVIES)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Love K-MOVI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7:30 ~ 19:30까지 진행되는 영화 상영 행사는 코미디, 로맨스, 시대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최신 영화 또는 우수작들을 영어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매 상영 시 청소년에서 대학생, 회사원까지 평균 20~40명의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평상시 극장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영화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K-pop 댄스 강좌 (Kelas K-Pop)

한국문화원의 회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6주간(총 6회) K-pop 댄스를 직접 배워보는 K-pop 댄스 강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댄스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1:00~2:30에 진행됩니다.

댄스강사는 유명한 프로 강사는 아니지만, K-Pop을 사랑하고 댄스에 소질이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대부분 실제 강사로 활동하거나 K-Pop 커버댄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K-Pop 관련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며, 강사진과 수강생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녀시대 Gee, 원더걸스 Be My baby, T-ara Roly Poly 총 세 강좌가 열렸으며, 2ne1의 I am the best, 빅뱅의 Fantastic Baby, Infinite의 Before the dawn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강좌 당 정원은 20명, 관련 정보는 문화원 페이스북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원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 단체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 및 한국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문화원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담으로 재미있게!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면서 이 나라는 약자를 참 많이 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이긴 한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니 재미있는 합성어가 많았습니다. mata-mata(간첩), polisi tidur(과속방지턱), panjang lidah(비방자), campur tangan(참견), hujan emas(사업이 잘됨), jalan tikus(갯길) 등...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나라이름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인도 : indus>와 <섬 : nesos>의 합성어로군요. 인도네시아,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처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네시아’는 그리스어 ‘nesos’에서 파생된 말로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누산타라(Nusantara)’라고 하는데 중세 때 자바의 주민들이 사용한 명칭으로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동일한 뜻이라고 하는군요.

박정자 / 한인뉴스 편집장

1. Mengatakan mudah, mengerjakan susah.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 번 해버린 말은 없었던 일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강제시키는 것이죠. 어려운 일 앞에서 우선 말부터 해놓고 실천해나가는 것, 이 속담을 뒤집어 잘 이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네요.

단어의 뜻과 예문>

Mengatakan[어근: kata] : ① 말하다, 말로 표현하다 ② 이야기해주다, 알려주다, 언질을 주다
⑤memberitahukan, menceritakan, menyampaikan, mengucapkan
/ mengatakan tanpa berpikir(무심코 말하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다=mengatakan secara langsung)

mudah : ① 쉬운, 용이한, 간편한(=/=sulit);
⑤gampang / pekerjaan itu mudah(이 일은 쉽다)

② 성급한, 조금한 / Jangan mudah saja(서두르지 마시오)

③ 무분별한, 경솔한

mengerjakan[어근: kerja] : ① 해내다, 수행하다, 실행하다, 완수하다; ⑤melaksanakan, melakukan, berbuat, menjalankan / Ia mengerjakan pekerjaannya dengan rajin. (그는 그의 업무를 성실히수행했다) ②끝내다, 완료하다, 완수하다, 해치우다, 살해하다;
⑤menghabisi, menyelesaikan, menyudahi / mengerjakan tanah(땅을 경작하다)

susah : ① 곤란, 어려움, 문제 / Itu banyak susah(그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② 걱정하는, 근심하는; ⑤gelisah, khawatir / Jangan susah, saya yang akan mengambilnya.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③ 슬픈, 비통한; ⑤sedih hati / Ia susah karena uangnya hilang.(그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펐다)

④ 어려운, 힘든; ⑤sukar

⑤ 얻기(구하기)힘든, 어려운; ⑤tidak mudah / Uang agak susah sekarang ini.(요즘 돈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 Buku sedemikian itu susah diketemukan.(그와 같은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2.

Timur beralih ke sebelah barat.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우리 속담에 ‘군밤에 싹 나거든’이라는 말이 있죠.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할 수는 있어도 군밤에서 싹 나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는 말도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대략 상황이 그려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다가 ‘인천공항에 물차거든...’ 하면서 웃기도 했는데, 이곳 인니에서는 ‘자카르타공항에 물차거든...’ 그러면 안 되겠죠?

단어의 뜻과 예문>

Timur : 동쪽, 동쪽의, 동양의 / timur laut(북동쪽), timur tengah(중동), timur tenggara(동남쪽)

* barat : 서쪽, utara : 북쪽, selatan : 남쪽

beralih[어근: alih] : 옮기다, 바꾸다 / Beralih kepada acara yang baru.(새로운 계획으로 바꾸다)

(ke) sebelah : 반질, 반쪽, 여럿 중의 하나;
⑤arah, setengah, sesisi

* sebelah belakang : 뒤쪽, sebelah dalam : 안쪽, sebelah kiri : 왼쪽

sebelah luar : 바깥쪽 sebelah muka : 앞쪽
sebelah oposisi : 반대쪽의

sebelah selatan / sebelah timur / sebelah utara

barat : 서쪽, 서양의

3.

Ulam mencari sambal. 천생연분

미팅에서 처음 만난 청춘남녀, 상대방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 “저... 이름이...?” “<호선>이에요. 성은 <이>가구요.” “이런, 우리는 천생연분이네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 성이 <전>가거든요...”

단어의 뜻과 예문>

Ulam : 반찬

mencari[어근: cari] : 찾다, 찾아내다, 탐구하다, 알아내다

mencari salah(오류를 찾다)

mencari akal(방책을 찾다, 시도하다)

mencari hitungan(풀다, 풀어내다, 계산하다)

memcari nama(유명해지려고 하다)

mencari muka(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다, 칭찬에 눈이 멀다)

mencari jalan(길을 찾다)

mencari nafkah(밥벌이하다)

mencari uang(돈을 벌다)

Walau masih kecil dia sudah mencari nafkah untuk keluarganya. (그는 아직 어리지만 가족을 위해 밥벌이를 한다)

Kalau begitu, kami akan mencarinya, dan segera memberitahukan kepada anda. (찾는 대로 곧 알려 드릴게요)

sambal : 인니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양념 소스의 일종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박진원 / 아름다운병원 원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퇴행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암으로 인해 6만여 명이 사망하고, 심혈관질환으로 5만 8천여 명, 당뇨병으로 1만 1천여 명이 사망하여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은 40세 전후부터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경제적 생산능력이 있는 연령층의 노동력 상실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큼니다.

1974년 캐나다의 보건장관(Marc Laronde) 연례보고서에서 건강과 만성퇴행성질환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유전적인 요소 10%, 환경적인 요소 10%, 의료적인 요소 10%,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생활방식에 의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의학 역사상 생활방식 또는 생활습관이 만성퇴행성질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첫 사건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암, 심혈관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을 부르는 명칭은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이라는 용어를 상용하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생활습관 관련병(life-style related disease)이라 칭하고, 프랑스에서는 생활습관병이라는 의미에서 “maladie de comportement” 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심장병, 순환기병, 신장병, 당뇨병 등을 “문명병(zivilisationskrankheit)” 이라고 부르고, 스웨덴에서는 생활이 유복한 사람이 잘 걸린다는 의미에서 “유복병(valfardssjukdomar)”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성퇴행성질환의 명칭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만성퇴행성질환을 “성인병(成人病)” 이라고 불렀으며, 이 용어는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 통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성인병은 만성퇴행성질환이 주로 성인에서 발생한다는

데 착안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소아에서 만성퇴행성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성인병” 이란 용어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인병의 개념과 용어는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통용되었습니다.

생활방식(life style)이란 것은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그리고 휴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1차 예방적 개념이며, 소아기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성인병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와 같은 2차 예방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질병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체, 유해물질, 사고, 스트레스 등 외부 환경요인이 20%이고, 유전 이상인 유전요인이 20%, 의료서비스 8%, 그리고 52%는 식생활, 운동, 흡연 등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이 성인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생활습관이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도 “성인병” 이라는 용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히로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가 “습관병(習慣病)”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1년 카와쿠보 키요시(川久保清)는 “생활습관병(生活習慣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후생성 공중위생심의회에서 “생활습관병” 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식습관, 운동습관, 휴양,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발병,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군’ 이라고 “생활습관병” 을 정의하였습니다. 생활습관병의 개념이 기존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설명하던 성인병의 개념을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습관병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과 진행을 예

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도 만성퇴행성질환을 “성인병”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이 성인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국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약 40년 동안 사용하였던 성인병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생활습관병”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대표적인 생활습관인 흡연, 음주, 영양, 운동과 비만이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은 사망 및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 중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입니다. 담배에는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25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의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의 사망에 20%, 암의 사망에 29% 기여하고, 특히 폐암의 사망에 83% 기여 합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의 발생이 16배, 후두암의 발생이 10배(남자), 구강암의 발생이 27배(남자), 식도암의 발생이 8~10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이 12배,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2배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하루 1갑이상 흡연하는 사람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비교위험도는 8.6이고,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교위험도는 5.8로 흡연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의 비교위험도는 6.7로 성인이 되어 흡연하는 경우 (비교위험도 : 4.8)보다 폐암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으므로 서양인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도 흡연이 동맥경화성질환의 독립

적인 위험인자가 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귀속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는 41%이고 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귀속위험도는 26%인데, 이는 전 국민이 금연한다면 관상동맥질환은 41%, 뇌혈관 질환은 26%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음주는 구강, 후두, 식도 및 간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암에 대한 음주의 비교위험도는 약 4이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러한 암이 발생한 경우 약 75%가 음주와 관련이 있고, 전체 인구로 보았을 때는 약 20%가 관련이 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이 같이 이루어질 경우 상승작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을 높여 줍니다. 남성에서 생기는 고혈압의 약 10%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관련이 있다. Kaiser Permanente study에 의하면 여성에서는 음주량과 혈압 사이에 J형의 관계를 보이고 남성에서는 선형적인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영양부족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면서 영양의 과잉과 불균형이 만성퇴행성질환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10대 사망원인 중 5가지인 관상동맥질환, 암, 뇌졸중, 당뇨병, 간경변증 등은 열량, 포화 지방산, 콜레스테롤과 소금이 많고 섬유소가 부족한 식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지방과 열량이 많은 식이를 섭취할 경우 결장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할 경우 소화기나 호흡기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유방암의 발생은 육식과 양의 관련성이 있고 채식과는 음의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L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성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이 사회문화적요인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에 이민 온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에서 육류와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아지고 탄수화물 섭취가 적어짐에 따라서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대조군에 비하여 지방 섭취량이 많은데, 특히 서구인에 비해 지방 섭취가 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지방 섭취가 조

금만 증가해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Cutler 등은 메타분석을 통해 소금 섭취를 제한할 경우 혈압이 감소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혈중 지질 농도가 올라가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영양과잉은 당뇨, 그중에서도 제2형 당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열량이 많은 서구식 식이는 당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지방과 열량을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운동이 부족하면 비만을 초래하여 당뇨병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대장암, 유방암 등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많은 전향적 연구를 통해 운동을 하면 심근경색증, 고혈압 및 뇌졸중의 이환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활형태가 서구화되면서 육체적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당뇨가 생길 위험이 더 증가 합니다. 더욱이 지방과 열량이 많은 식이로 인해 그 위험성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운동이 부족할 경우 당뇨의 위험성이 더 많이 증가 합니다. 비만한 사람에게서 자궁내막암, 결장암, 담낭암, 전립선암, 신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며, 비만은 고혈압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Framingham study와 Intersalt study, nurses' health study 등에서 비만과 고혈압 발생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비만하면 혈중 TRIGLICERIDE 농도가 낮아지고 HDL-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심혈관질환 및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질량 지수가 30 kg/m^2 이상인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조기사망의 위험이 50~100%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남자 22.8 kg/m^2 , 여자 23.4 kg/m^2 로 남자의 77%, 여자의 70%가 25 kg/m^2 미만인 정상수준에 속하였음에도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혈압이 증가하여 비만 정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고혈압의 위험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년이나 노년에서 체중이 증가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비만의 경우 체지방의 분포와 관련이 있어서 상체 비만인 경우 심혈관 질환과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기에 과체중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혈관질환이나 당뇨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에서는 1979년 "Healthy People-The Surgeon General's Report O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을 발간한 이래 1990년과 2000년에 각각 "Healthy People 2000-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bjectives"와 "Healthy People 2010"을 발간하여 국가보건사업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Healthy People 2010에서는 10개의 주요건강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건강지표는 다시 28개 분야에 467개의 구체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10개의 지표는 생활습관, 물리·사회적환경, 개인과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개가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특히 운동, 과체중, 비만 조절, 금연 등에 중점을 두고 생활습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법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한 가지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다른 만성퇴행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은 생활습관병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유전요인, 외부환경요인, 생활습관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때 생활습관 요인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생활습관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국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개인은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도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느리게 걷기...

서미숙 / 수필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참 좋은 건 ‘느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벌써” 벌써’라는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힘이 주어진다.

이제 인도네시아 생활이 2년째로 접어든다는 나와 함께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P시인의 말이다. 그녀도 이미 그 고행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 이곳에 살면서 느긋하게 인내를 갖고 현지인들을 대해야 하는, 나를 다듬고 버려야 하는 실체를 그사이 터득했다는 말인가? 그녀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한 말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도네시아 생활을 돌아보게 한다.

볼에 와 닿는 바람이 끈끈하고 열대지방만의 특유하고 습한 느낌이 전신을 감돌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함께 부딪치고 생활해야 하는 현지인들의 슬로우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림의 일상은 그런 더위보다도 한층 더 나를 지치게 했다.

시련과 상실도 영혼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 답답한 감정을 승화시키며 인도네시아에 살

아오는 동안 내 삶 속에 얻은 소득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적절히 인내하는 기다림으로 인해 터득된 ‘느림의 미학’이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포용하고 선하게 잠재우려는 노력, 그렇게 수양된 마음의 여백이 유연한 삶으로 정화되고 있음이다. 한국에서는 덤다, 지친다 하며 한철 보내는 여름을 힘들어 한다. 그러나 일년 내내 더운 이곳 열대지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느림의 방식이 어찌면 더운 지방에서 삶을 지탱하고 건강을 지키는 삶의 비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다.

한국인의 기본정서는 대부분 정해진 시간 안에서 끝내야 하고 “빨리빨리” 해야 하는 생활습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눈부신 부지런함과 설 틈 없이 달려온 땀뭉기로 빠른 경제발전도 이루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와 정서적인 안정에 있어서는 선진국민으로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깨달음을 갖게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천성이랄까, 그야말로 열대의 나라 사람들답게 느긋하기 그지없다. 거리의

교통상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해가 갈수록 새로운 빌딩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의 거리들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음이 신기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했는지 요즘 거리를 보면 확장되거나 새로 뚫리는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그로 인해 홍수처럼 몰려드는 차들로 정체되는 교통체증은 이제 쉽게 접하는 자카르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운전자들은 짜증을 내지는커녕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부르며 오히려 유유자적(悠悠自適) 그 여유를 즐기는 듯 하다. 그들의 느긋한 의식에 찬사가 절로 나온다. 습관처럼 빨리 가야만 하는 한국인의 여유 없는 정서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생활을 시작하면서 낙천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게을리 보이기도 하는 이곳 현지인들을 대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열대의 더위만큼이나 큰 고행이었다. 매일 아이들의 학교를 개인차량으로 운전기사가 학교까지 등교 시켜야 하는 이곳의 실정상 새벽시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음에 야...

아이들 등교시간이 다 되어서야 느긋하게 출근하는 운전기사, 발을 동동거리며 속을 태우고 있는데 기사의 녀석 좋고 한가롭기 그지없는 표정에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때를 맞추어 주택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슬람 경전 소리는 편안하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외침 같아서 나도 모르게 겸허한 마음이 되어 새롭게 마음을 다독인다.

자카르타 시내곳곳의 레스토랑과 한국식당들은 종업원의 숫자가 참 많다고 생각했었다. 한국에서는 웬만한 고급식당이 아니면 적당한 종업원과 또 셀 프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식당은 종업원 수가 많은 것에 비해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는 없는 듯 하다. 한국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바지런하고 매끈한 손놀림을

이곳 현지인의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 아마도 한국사람 1명의 능력이 이곳 사람 서너 명 정도 되어야만 겨우 가능해 보인다.

그런 까닭일까? 순발력하고는 거리가 먼, 이곳 현지인들의 오랜 생활습관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했음에도 생활에 깊이 자리잡은 느긋함의 사고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저 답답함을 삭히고 서서히 그들과 동화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가는 지혜를 배워가는 것이 아마도 이곳을 살아가는 현명한 삶의 방식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에 사는 특혜이기도 하겠지만 집집마다 현지인 가사도우미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는 늘 일상에서 나를 비워내는 수련을 하게 한다. 육체노동은 덜면서 마음맡에는 ‘인내’ 라는 뿌리를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 집 가사도우미 ‘뜨리’는 시골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주일의 휴가를 받아 떠났다. 더운 날씨에 혼자 해야 하는 집안의 고된 일들은 휴가 떠난 ‘뜨리’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한다. 일주일, 열흘, 두 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 그녀는 고향에서 파운 과일과 ‘다운싱쿱’이라는 채소와 열매로 만든 떡이라며 신기하기만 한 야채와 음식들을 한가득 안



고 돌아왔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뜨리를 반길 여유조차 없었는데, 그녀는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인사한다. 비위가 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나를 위해 가져왔다며 ‘싱쿵’이라는 채소를 내게 내밀었다. 그녀가 늦게 돌아온 이유가 꼭 병든 부모를 낫게 하기 위해 산천을 돌아 귀한 약재라도 구해온 효녀 같다. 순하게 웃는 그녀의 표정에 나도 모르게 그만 깊은 병에서 살아난 부모의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뜨리의 고향에서는 이 채소로 갖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한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는 영양식이라고 한다. 그녀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새 기다림으로 지친 야속함은 사라지고 신기하거니와 한 먹거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가사도우미 뜨리가 고향에서 풍부한 과일과 함께 ‘싱쿵’이라는 채소로 떡을 만들어 돌아온 날은 우리 집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슨 잔칫집이라도 된 냥 맘껏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이다. 그날 이후로 뜨리는 시장에서 길쭉한 줄기에 작은 잎들이 웅기종기 붙어있는 ‘싱쿵’을 자주 사서 요리를 한다. 잎으로는 나물을 만들고 뿌리로는 고구마처럼 찌기도 하고 떡도 만들어 낸다. 그렇게 식구들의 입맛을 돋우며 그녀를 기다렸던 고향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한 채소, 이곳에서는 종종 간식으로 먹으며 씹을수록 더욱 향긋한 맛을 느끼게 하는, 그 자연의 열매에 스며 있는 그들만의 여유로운 정서는 지쳐있는 마음의 무게를 내려 놓으라 한다.

따사로운 적도의 햇살에 이름 모를 열대의 꽃들은 붉게 꽃물이 든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도, 나의 새로운 의식의 꽃에도 알록달록 듬뿍 꽃물이 들었다. 호감과 실망의 마음 끝에서 물기어린 잎새처럼 은근히 삶의 온기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들... 어찌면 원초적인 자연을 닮은 듯한, 그래서 입을 옷과 바로 앞에 주어진 먹거리만 있다면 아무런 욕심이 없어 보인다. 그 편안한 여유로움에 나도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자연과 소통하고 있는 산과 들에 서있으면 몸과 마음이 평온해져움을 느끼듯이... 느낌이란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천히 여유롭게 나를 비우고 그 비움으로 인해서 터득되는 소중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

오늘도 이곳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할 한국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인내하며 인도네시아인들의 여유로움에 애간장을 태워야할까?

거북이처럼 느리긴 해도 초조하고 불안함 속에 몸을 돌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와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묵상, 그 체험의 행복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좌충우돌해야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고통을 거쳐야 함이리라.

한국에서 살 때는 자동차보다 빠른 마음 다스리기, 타인의 언행을 앞질러서 내 생각 전하기, 무심코 사람들과 만나고 이별하기, 바보상자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바라 볼 때면 살아가면서 겪는 그 허탈한 경쟁들로 인해 늘 지치고 힘이 들었다. 지금은 열대지방을 살아가면서 넉넉해 보이는 자연의 풍경과 느낌의 삶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 깨우치며 단련하며 완성시켜 가는 것, 그 시련의 고마움을 알게 되면 인생은 더 넓게 펼쳐진다.

사색이 있고 철학이 있는 느긋한 인생을 즐기고 살아온 우리 민족이기에... 여유로운 멋을 우아하게 담아둘 마음의 그릇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해 보는 건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온화한 바람이 분다. 따사로운 느낌에 젖어 창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붉게 물드는 적도의 노을 빛이 마치 정성들인 사랑처럼 아름답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한걸음 더디게, 한마음 늦게, 느리게 사는 즐거움(“Don’t Hurry, Be Happy!”)으로, 인생은 불가사의 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의 연속이다. 애써 그 비밀을 알려 하지 말고 그것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캐나다의 작가 어니 J. 젤린스키의 말이 더욱 가까이 떠오르는 날이다.

분쟁 해결 제도(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9.1. BANI는 1977. 12. 3. 설립됐으며,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기관이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공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모든 뉴욕협약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9.2. 분쟁은 나지 않았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애매 모호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혹은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거 BANI는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 BANI의 유권해석을 어기는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9.1. BANI의 중재영역 : 상거래, 합작투자 등 모든 상행위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9.2. 중재의 기본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을 기재하거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BANI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BANI 중재가 불가하다.

9.2.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지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BANI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9.2.2. 표준 영문 중재 조항 [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BANI) in Jakarta,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I’ 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9.2.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 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yang keputusannya mengik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sebagai 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9.3. 중재 청구 등록

청구자는 BANI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구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형식 요건은 다음과 같다.

9.3.1. 청구자 및 피청구자의 성명 혹은 상호, 주소 혹은 연락처

9.3.2. 분쟁내용 설명

9.3.3. 청구사항

9.2.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재 청구합의서

9.3.5. 제삼자에게 위임 시 위임장

9.3.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I에 지명의뢰 의사 표시

9.3.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9.3.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4.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I의 중재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자와 피청구자 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9.5.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9.5.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9.5.2.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청구자와 피청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정할 수 있으며, BANI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재부장이 된다.

9.5.3. 청구자나 피청구자가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I에서 직권으로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자측에서 중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중재청구를 당하면, 피청구자는 BANI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대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법정에서 싸움보다 더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다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 중재는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 상대 당사자가 형벌을 어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ANI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가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9.5.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명망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교수,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기술전문가, 업종협회 회장등 기타전문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전문가 등이 있다.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 명단을 검토해보고 청구자나 피청구자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9.6. BANI의 중재비

9.6.1. BANI의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번 호	청 구 액(Rp)	중재비
A.	500,000,000 이하	10.00%
B.	500,000,000	9.00%
C. 1	1,000,000,000	8.00%
2	2,500,000,000	7.00%
3	5,000,000,000	6.00%
4	7,500,000,000	5.00%
5	10,000,000,000	4.00%
6	12,500,000,000	3.50%
7	15,000,000,000	3.20%
8	17,500,000,000	3.00%
9	20,000,000,000	2.80%
10	22,500,000,000	2.60%
11	25,000,000,000	2.40%
12	27,500,000,000	2.20%
13	30,000,000,000	2.00%
14	35,000,000,000	1.90%
15	40,000,000,000	1.80%
16	45,000,000,000	1.70%
17	50,000,000,000	1.60%
18	60,000,000,000	1.50%
19	70,000,000,000	1.40%
20	80,000,000,000	1.30%
21	90,000,000,000	1.20%
22	100,000,000,000	1.10%
23	200,000,000,000	1.00%
24	300,000,000,000	0.90%
25	400,000,000,000	0.80%
26	500,000,000,000	0.60%
D.	500,000,000,000 이상	0.50%

9.6.2. 상기 공식 중재비 중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추가 부담)

9.6.2.1. 전문가 증인 초청비

전문가 증인 채택은 중재 당사자가 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이 초청할 수도 있다. 중재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중재부에서 요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전문가 증언에 관련된 경비는 중재 당사자가 부담한다.

9.6.2.2. 해외거주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중재위원의 출입국 교통비, 국내 숙박비 및 추가비용(*필요시)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9.6.2.3. BANI 중재실 밖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 장소비를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9.6.2.4. BANI 판결문 법원등록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9.6.2.5. 당사자의 요청 시 BANI 의견서 제공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9.6.3. 상술한 공식 중재비는 테이블에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9.6.4.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처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록 통지가 가며, 피청구자가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가 중재비 50%를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피청구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9.7. 맞중재 청구

피청구자는 청구자에 대하여 맞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중재 청구 시한은 중재 첫 심리 전까지이다.

9.8. 쉼석 중재판결

피청구자가 중재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쉼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쉼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자는 판결내용 피통지일로부터 14일내에 쉼석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쉼석판결문의 내용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

에 있는 피청구자가 BANI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국제간이니까 괜찮겠지 인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조처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기계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권석중재판결을 맞아,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여 압류를 당한 사례이

다. 인도네시아법원은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도네시아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법원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재원의 판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중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 절차가 민사소송법대로 진행됨으로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사진 한 컷 > 여수세계박람회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손으로 추는 춤' 인도네시아 '사만댄스' 여수엑스포서 이색 공연



5월 20일(일),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인 '인도네시아의 날' 을 맞아 인도네시아의 전통댄스인 사만댄스(Sman Dance)가 공연됐다. 사만댄스는 수마트라섬 아체주의 전통춤으로 지난해 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사만춤은 무릎을 꿇은 채 열을 맞춰 손으로 추는 춤이다. 열 중앙에서 대표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바뀌는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가슴, 허벅지, 바닥을 철썩 때리며, 손가락을 부딪쳐 소리를 내고, 몸과 머

리를 흔들고 비튼다. 이 동작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멋진 인도네시아 바다 : 열대 다양성의 지속' 을 주제로 참가하고 있다.

‘통영의 딸’ 신숙자씨 가족의 비극적인 삶

전 성 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4월 27일 북한이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가 사망했다고 유엔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통보했다. 1942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신씨는 20대에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다 유학생 오길남씨와 결혼해서 두 딸을 두고 화목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핏에 빠진 남편 오씨를 따라 1985년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길남 씨는 당시 독일에 주재하던 북한 공작원의 교수직 제의와 ‘조국을 위해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음악가 윤이상의 말을 믿고 가족을 대동하고 월북했다. 그러나 대남 간첩침투 훈련 등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생활이 강요되자 1986년 덴마크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탈출한 후 자수했다. 북한에 남겨진 신씨와 두 딸은 수용소를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5월 통영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신씨 모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후 한국에서는 ‘통영의 딸’ 신씨 가족을 구출하자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되었다. 작년 가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출 통영의 딸! 백만 업서 청원운동’이 대한적십자사에 청원서를 전달했고, 신씨의 고향 통영에서 임진각까지 ‘1천 7백리’ 국토대장정도 열린 바 있다. 특히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작년 11월 유엔에 신씨와 두 딸의 구명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신씨에 대해 문의를 하자 북한당국은 종이 한 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신씨가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도 어머니를 죽게 만든 오길남씨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며 오씨를 만나는 것도 강력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신씨 모녀가 유엔이 제기한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사자인 오길남씨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북한 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사망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인 소견서도 없다. 이런 식의 단순한 ‘사망 통보’는 북한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아무리 국제여론에 떠밀려 답변서를 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로 신씨가 사망했다면 유해라도 그녀의 고향땅을 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이다.

정치도 사상도 모른 채 부모 손에 끌려 북한으로 들어간 두 딸의 운명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독일에서 두 딸이 바이올린을 켜며 즐거워하는 사진과 요덕수용소에서 어머니 신씨와 무표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 마치 천당과 지옥을 비교해 놓은 것 같다.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두 딸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데, 이 역시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두 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두 딸과 아버지가 제3국에서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씨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은 북한 체제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남북분단사의 슬픈 현실이다. 신숙자씨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정권의 독재와 참상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의 비인간적 행태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국제여론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사실 북한정권은 태생적으로 반민족적, 반인륜적이다. 1945년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한 후 오늘날까지 김일성 일가가 자행한 행동은 반인륜 자체이다. 토지개혁을 명분으로 한 재산몰수, 지주계층 학대, 6·25 남침전쟁과 양민 학살, 북한 동포들에 대한 폭정과 독재, 대남 협박과 도발 등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김씨 일가의 모든 행동이 그렇다. 신씨 가족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 모두에게도 부여된 시대적인 소명이다. ●●



21세기 바다 르네상스의 진원지, 여수 엑스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가 5월 12일부터 8월1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신항 일대에서 3개월 간의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복지향상, 인류의 미래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엑스포는 일반 무역박람회와 확연히 구분된다. 엑스포는 참가국의 종합홍보를 위한 세계적인 규모의 박람회로 참가단위도 개별업체가 아닌 국가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엑스포를 경제·문화 올림픽이라 칭하며, 올림픽 및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2 여수세계엑스포도 국제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세계박람회로서 개최 의의는 사뭇 남다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당당하게 인류의 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주체가 된 점이다. 이번 여수세계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다. 해양오염의 심화, 해양 생태계의 파괴, 해수면의 상승 등 해양문제는 세계가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다. 이렇게 바다와 연안과 관련된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해양환경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해양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여수세계엑스포가 가진 큰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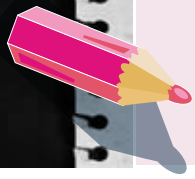
해양은 아직 지구상에서 인류의 미개척지이자 미래의 보고이다. 여수엑스포는 해양과 연안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여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논의의 장(場)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던 국내 해양관광산업과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도 여수세계엑스포 개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여수엑스포를 통해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진다. 또한 해양 에너지 활용과 해양오염 제어 등 해양첨단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과 투자도 늘어난다. 이러한 신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구현됨은 물론이다.

여수세계엑스포는 남해안지역의 경제발전 기폭제로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오동도와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여수 및 남해안을 세계 수준의 해양문화 및 관광 레저벨트로 개발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해양문화의 진원지이자 세계적인 바다 르네상스의 발생지로서 여수의 이름을 전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세계의 100여개 국가가 저마다의 선진 해양기술을 발표하고, 이를 뽐내는 한편 미래 해양환경을 논의하는 장이 될 여수세계엑스포의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하다. 박람회장의 건설은 물론 박람회장까지의 항공과 철도, 육로 등 도로와 각종 편의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2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약 7만 9천개의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5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 전라남도 예산총액이 5조 3,500억 원인데 여수세계엑스포 3개월 간의 행사를 통해 1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뿐만이 경제적으로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항구도시 여수와 대한민국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에 이어 여수세계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되었다. 88서울올림픽과 월드컵 4강 신화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의 원대한 꿈과 기상이 여수 엑스포를 통해 한껏 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



알립니다

행사를 알리고 싶은 분은

한인 뉴스편집실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 및 북한도발행위 사진전시회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는 자유총연맹과 함께 교민 및 교민자녀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6.25 전쟁 및 북한도발행위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8일(월)~6월 28일(목),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문의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서남아협의회 자카르타 사무실 (021-520-6655)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제3회 '인도네시아이야기' 인터넷공모전 안내

‘갈망하라 그리고 무모하라’ 새로운 문명을 주도했던 ‘스티브 잡스’ 는 그 어떤 기술도 인문학적상상력과 예술적상상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감동을 주지 못한다 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감성이 글을 통해 소통의 장을 형성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감성의 사회화 과정이 바로 양국 문화교류의 든든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 제2회 시상식 ‘김영선대사 축하’ 중에서

1. 주 제 : 인도네시아이야기
2. 원고모집기간 : 2012년 6월~9월15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 A4용지 2쪽에서~ 3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 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문 의 :

서미숙 08128178050 / gaeunsuh@hanmail.net 김기현 0811984.744/ gengki@knoc.co.kr

215회 문화탐방- 야성과 전을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일 시 : 2012년 6월 16일(토) 9:00~13:00 (연구원에서 출발)

탐방지 : ROEMAH DJAWA

(Makan siang di ASMAT ART room Indonesia tradisional RIJSTTAFEL)

연락처 : (021) 7883 9597 / jalanjalanindonesia@ymail.com / ballonjoa@hanmail.net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

JL. Taman Margasatwa, no.3, BUS WAY SMK 57 Ragunan, Jak. Sel

고국에 가시거든 최고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재인니한인회와 건강검진 협약, 한국건강검진협회 <홈페이지 : www.kahp.or.kr>

2012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1	한인회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2012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2	10,000
3	한인회 부회장	강희중	PT. SUNG TECHNOLOGI	2012	5,000
4	한인회 부회장	김주철	PT. STARCAMTEX	2012	5,000
5	한인회 부회장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2	5,000
6	한인회 부회장	조용우	외한은행	2012	5,000
7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송정	UNICON INDO MESIN	2012	2,995
8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2	3,000
9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완주	PAN BROTHERS TBK	2012	3,000
10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병우	ANEKA PANEL INDONESIA	2012	3,000
11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주한	ROYAL SUMATRA	11/12	2,000
12	자문 위원	김영만	KIPCO CO. LTD	2012	1,000
13	자문 위원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2	1,000
14	자문 위원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11/12	2,000
15	자문 위원	양영연	PT. BOSUNG INDONESIA	2012	1,000
16	자문 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2012	1,000
17	이 사	강주석	PT. SERIM INDONESIA	2012	1,000
18	이 사	구자성	일요신문	2012	1,000
19	이 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2012	1,000
20	이 사	김문호	PT. DADA INDONESIA	2012	1,000
21	이 사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2012	1,000
22	이 사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2012	1,000
23	이 사	김영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2	1,000
24	이 사	김원관	PT. GF INDONESIA	2012	980
25	이 사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2012	1,000
26	이 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2012	1,000
27	이 사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2012	1,000
28	이 사	서영율	PT. PRATAMA ABADI	2012	1,000
29	이 사	석웅치	PT. DAYUP INDO	2012	1,000
30	이 사	안선근	UIN UNIVERSITY	2012	1,000
31	이 사	안홍제	PT. KOLON INA	2012	1,000
32	이 사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2012	1,000
33	이 사	윤석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2	1,000
34	이 사	이상일	PT. U I B	2012	1,000
35	이 사	이석태	PT. U F U	2012	1,000
36	이 사	이종억	K A L	2012	1,000
37	이 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2012	1,000
38	이 사	전민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2	1,000
39	이 사	차상만	PT. HANKOOK CERAMIC INONESIA	2012	1,000
40	이 사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12	1,000
41	이 사	홍기호	PT. AURORA INT' L CO.	2012	1,000
42	이 사	홍종서	PT. DONGEN CHEMICAL	2012	1,000
T O T A L				\$95,975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84	667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 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1-3951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델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낙을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프라임투어 (한국어)	0857	1009	3479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567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썸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 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썸까랑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문화연구원(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S (NUSADUA)	770 256
AIS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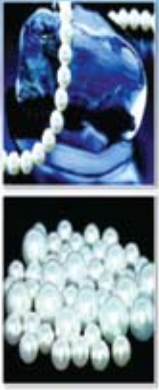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가듯
충실한 도약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Mens & Ladies

HEAVY CASUAL JACKET and PANTS



PT. UNGARAN INDAH BUSANA

(EXPORT-IMPORT & MANUFACTURE)

3rd Floor SATMARINDO Building, Jl. Ampera Raya No.5, Cilandak
Jakarta Selatan 12560-INDONESIA
Tlp.(021) 7800820, Fax.(021)7805823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